

退溪學의 道德論의 解釋

安東教育大學 副教授 崔 省 默

《目 次》

- | | |
|-------------------|---------------------------------|
| I 머 리 말 | IV 道德의 段階的 修練—「小學」, 「大學」 |
| II 退溪 人間像의 根元의 解釋 | 1 「小 學」 |
| 1 哲學者로서의 退溪 | 2 「大 學」 |
| 2 文學家·詩人으로서의 退溪 | V 天人一體觀—易, 天命, 西銘 |
| 3 政治人으로서의 退溪 | 1 周 易 |
| 4 教育者로서의 退溪 | 2 天命圖說 |
| 5. 道德人으로서의 退溪 | 3 西 銘 |
| III 聖學十圖割와 德化 | 4 滅私爲公의 仁愛 |
| 1. 立 志 | VI 四端七情論 |
| 2 愼 思 | 1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 |
| 3 學 | 2 人乘馬에 比喻되는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 |
| 4 持 敬 | VII. 結 論 |
| 5 德化 雰陶氣 | |

I. 머 리 말

오늘날 到處에서 退溪思想에 關한 研究가 諸學의 여러 側面에서 活潑하게 展開되고 있다. 道德人으로서의 退溪, 哲學者로서의 退溪, 文章家·詩人으로서의 退溪, 政治家로서의 退溪, 教育者로서의 退溪 等等.

이처럼 그의 思想이 現代의 分化된 諸學의 여러 側面에서 研究되어질 수 있음은 그만큼 그의 思想이 多樣하고 宏大함을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諸學의 分化된 領域에서 把握되는 退溪의 人間像 가운데서도 “道德人으로서 把握되는 退溪”의 人間像이야말로 人間 退溪의 眞面目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意味에서 退溪學을 道德 및 道德論의 立場에서 規明한다는 것은 退溪思想의 眞髓를 가늠하는 가장 根本的이고 核心的인 要素라 아니할 수 없다. 退溪에 있어서는 이러한 核心的이요, 主體的인 道德의 客觀化가 哲學으로, 文學으로, 或은 政治로, 或은 教育으로 나타난 것이다. 卽 退溪學에 있어서 諸思想的 領域은 道德의 主體的 權能의 客觀化이기 때문에 道德을 餘外한 其外 領域의 分散的 考察은 部分的, 一面的 考察이요 알맹이 없는 皮相的 觀察에 不過하다.

이에 本稿를 于先 以上에서 例擧한 各領域에서 보는 退溪의 人間像을 吟味한 後에 核心的 領域인 道德人으로서의 退溪와 그의 道德論에 關한 思想的 考察을 해보고자 한다.

Ⅱ. 退溪 人間像의 根元的 解釋

1. 哲學者로서의 退溪

우리는 退溪의 哲學的(思辨的 意味로서) 業績을 결코 輕視할 수 없다. 그는 中國 宋代 以後로 杜絶하다시피한 程朱의 性理學을 繼承하여 오로지 獨學과 思索으로 이를 綜合 體系化한 大哲學者요, 東方 儒學의 集大成者로, 그의 思想의 宏大함과 思索의 深奧함과 理論의 精緻함은 他人의 追從을 不許할 程度이다.

특히 人性論에 있어서 四端理發而氣隨之와 七情氣發而理乘之는 그의 獨創的인 思索을 通하여 이룩된 것으로, 이를 通하여 近世朝鮮 性理學의 特色을 이루어 놓기도 하였다. 이 四端七情論은 奇高峯과의 무려 八年間에 걸친 書信論辯을 通하여 確立된 것임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이러한 오랜 歲月의 論辯을 하고 난 後에도 두 어른의 異見은 當初에 比하면 많이 調整은 되었으나 그렇다고 完全 解決을 본 것은 아니었다. 高峯이 繼續해서 論辯하러들 때에 退溪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忠告하고 있다. “가령 이처럼(論辯)해서 充分히 마땅하고 實한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一身에는 한 덕력만큼도 消化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부질없는 싸움을 하여 聖門이 크게 禁하는 일을 犯하는 것 뿐입니다.”¹⁾

退溪에 있어서 理에 關한 規明은 그의 學問 全體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退溪에 依하면 理라는 것은 그저 이것 저것에 關한 知識이나 주어 모아 가지고 앞을 뽑내며, 相對方을 이기려고 論爭을 일삼는 데 있지 않다는 뜻이다. 即 理에 關한 學的 態度는 單純한 客觀的 知識의 追求나 翫得을 目的으로 하는 理論性的 認識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道德人으로서 人生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道理를 묻는 意味로 使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窮理함은 뜻하는 것인데, 이 窮理는 居敬과 함께 退溪學의 學的 方法에 있어서 二大支柱이며, 必要不可缺의 要素이다. 例컨데 窮理함이란

“仁義禮智의 네 글자를 解釋하는 것은 萬若에 그 글 뜻만 보아, 비록 외우거나 풀이

1) 退溪先生文集, 卷三十七, 二~三面, 與奇明彥壬戌:假便如此得十分, 見當實於身已無一貼近, 只成閑爭競以犯聖門之大禁.

함에 있어서는 毫釐의 差도 어지없다 하더라도 畢竟 무슨 利益이 있으리오, 오직 네 글자의 뜻으로 題目을 삼아서 생각하며, 고요히 인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研究하고, 또 吟味하며 體認(認은 辨識을 뜻한다)하여, 仁이 나의 마음에 있으면 어찌하여 마음의 德이 되며, 어찌하여 愛의 理가 되며, 어찌하여 溫和慈愛의 道理가 되는 것이며, 義가 나의 마음에 있으면, 어찌하여 마음의 節制가 되고, 어찌하여 일의 마땅한 바가 되며, 어찌하여 裁斷하는 理致가 되는 것인가를 體驗(驗은 考察함을 뜻한다.)하고, 禮와 智에 있어서도 이와같이 할 것입니다”²⁾라든가 或은 “事物의 理를 그 根本에 따라 論하면 元來 至善아닌 것이 없으나, 善이 있으면 惡이 있고, 善은 것이 있으면 그른 것도 있는 것이 또한 必然한 까닭이다. 그 때문에 무릇 格物하고 窮理하는 까닭은 是非와 善惡을 研究하여 밝혀서 버리고 取하려는 것”³⁾이라고 退溪는 말하고 있다

大體로 理는 所以然之故와 所當然之則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前者는 存在論的인 根據로서 舟當行水, 車當行陸과 같은 理致를 뜻하며, 後者는 當爲의인 法則으로서 君當仁臣當敬, 父當慈子當孝와 같은 道理를 뜻한다. 그러나 儒學에 있어서 이들에 關한 歷史的 源泉은 後者인 道德의 實踐論의 意味로 먼저 使用되었고, 後者의 思辨的·存在論的 解釋은 훨씬 뒤인 宋代에 들어와서 佛敎와 道敎의 刺戟을 받은 性理學派에 依하여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性理學에 있어서 理의 思辨的·抽象的인 理論의 展開가 큰 比重을 차지하되, 理의 源泉的·本來的인 뜻으로서의 道德的·實踐的 側面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換言하면 理가 發하느냐, 發하지 않느냐에 關한 問題는 退溪 以後의 性理學派에 依하여 論爭의 中心이 되어 왔으나, 이러한 理를 人性論에 있어서 核心的인 道德과 關聯지워서 問題의 新마리를 풀려 하지 않고 舊된 論爭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設令 그 問題가 解決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論理的 遊戲는 元來 專門에서 바라던 意圖와는 距離가 멀며, 또한 百害無益한 것이 아닐 수 없다.

事實 近世朝鮮의 性理學은 이와같은 理發 氣發의 抽象的, 觀念的인 形而上學의 論爭으로 흘러버려 當初 退溪가 要求하는 本來的인 意味가 喪失되고 말았다 하겠다.

2. 文學家, 詩人으로서의 退溪

退溪의 文學面에 있어서도 오늘날 많이 研究되고 있음은 그만큼 發掘의 意義가 있다는

2) 上揭書, 卷之三十七, 二五~八面, 答李平叔問目大學·仁義禮智四箇字釋, 若徒看大義, 雖記誦解釋, 不差毫釐, 畢竟何益, 須將四箇字義做題目入思議 靜坐潛心研究玩味體認(認辨識也), 體驗(驗考視也), 仁在吾心, 若何而爲心之德, 若何而爲愛之理, 若何而爲溫和慈愛底道理, 義在吾心, 若何而爲心之制, 若何而爲事之理, 若何爲斷制割底道理, 於禮於智, 亦當如此

3) 上揭書, 卷之十四, 二十三面, 答李叔猷 珥○戊午 別紙·事物之理 循基本而論之, 固莫非至善, 然有善斯有惡, 有是斯有非, 亦必然之故也, 故凡格物窮理, 所以講明其是非善惡, 而去取之手.

것으로 史料되며, 또 그의 文學의 價値가 크다고 認定되기 때문이다. 事實 退溪는 詩作과 文章力을 兼備한 道學者로, 그의 깊은 哲學的 思索을 純正의 確한 詩와 文章으로 表現한 道文一致의 學者였다.

그러나 退溪에 있어서 道文의 比重은 道이지 결코 文이 아니다. 卽 그의 모든 詩와 文章은 道學의 한 象徵의 表現으로 나타난 것 뿐이며, 純粹藝術을 爲한 創作은 아닌 것이다. 卽 그에게 있어서 文은 道를 表現하는 手段이요 副次的인 要因에 不過하다. 그래서 그는 文章만을 일삼는 詞章學派의 글을 싫어했으며, 或은 男女의 愛情을 담은 愛情詩 따위와는 距離가 멀다 하겠다.

그의 道學爲主의 精神은 노래에 있어서까지 世俗的인 것을 賤視하고 警戒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노래와 곡조는 대부분 淫亂하여 足히 말할 것이 못된다. 翰林別曲같은 類는 글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나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며 더욱 君子가 마땅히 崇尚할 바가 아니다. 오직 近世에 李龜의 六歌가 世上에 盛하게 傳하니, 오히려 그것이 이보다 좋다고 하나 亦是 世上을 희롱하고 不恭하는 뜻만 있고 溫柔敦厚한 內容이 적음을 哀惜하게 여긴다. 이에 老人(退溪)은 本來 音律을 알지 못하나 오히려 世俗의 樂을 듣기를 싫어한다”⁴⁾

이에 그의 詩文은 하나같이 世俗的인 富貴와 榮辱을 떠나, 오로지 道學에 專念하는 心懷를 表現한 것으로, 이 중에 몇 首를 다음에 들고자 한다.

負石穿沙自有家，前行却走足偏多
生涯一掬山泉裏，不問江湖水幾何

十五歲 때에 지은 이 詩의 詩想에 이미 自然의 天理를 聯想하는 깊이가 간직되어 있다. 空然한 虛欲이 各者의 本分을 지키는 道理가 아님을 넌지시 比喩하여 읊은 詩이다

露草天天繞水涯，小塘清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只怕時時燕蹴波

十八歲 때에 燕谷里에 봄놀이가 가서 맑은 물이 고이 담긴 못을 보고 읊은 詩이다. 天理가 깨끗한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流行하는데, 짓곳은 人間의 慾心이 이것을 妨害하여 뒤흔들고 흐리게 하는 것이 탈이라는 뜻을 생각하며 읊은 詩이다.

身退安愚分，學退憂暮境
溪上始定居，臨流日有省

4) 上揭書，卷之四十三，二十三面，陶山十二曲跋。吾東方歌曲，大抵多淫哇不足言，如翰林別曲之類，出於文人之口，而矜豪放蕩兼以褻慢戲狎，尤非君子所宜尙，惟近世有李龜六歌者，世所盛傳猶爲彼善於此，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而少溫柔敦厚之實也，老人素不解音律，而猶知厭聞世俗之樂。

退溪學의 道德論的 解釋

五十歲 되던 해에 退溪의 한 쪽에 寒栖庵이라는 집을 짓고 讀書와 思索의 生活을 즐김을 詩로 나타낸 것이다.

榮辱如雲木來無，富貴逼人眞堪怕

又

富貴於我等浮雲，偶然得之非吾求

또는 陶山十二曲 中에서

古人도 날 못보고 나도 古人 못bec

古人 못본 봐도 너던길 알뻐있네

너던길 알뻐있거든 아니니고잇뉘고

(六曲之二 其三)

愚夫도 알며 허거니고 아니쉬운가

聖人도 못다 하시니고 아니어려운가

쉬거나 어렵거 낫둥에 늙는주를물래라

(六曲之二 其六)

3 政治人으로서의 退溪

退溪를 政治乃至 政治論的 側面에서 보는 人間像도 決코 默過할 수 없다. 三十三歲 때에 文科別舉初試에 合格된 다음해에 承文院權知副正字(從九品)로 輔職發令된 後부터 七十歲의 議政府右贊成, 判中樞府事(從一品)로 別世(歿後 領議政으로 追贈함) 하기까지 三十六年間을 官職에 몸을 담았었다.

退溪가 出生(1501)하던 當時의 社會는 前後 戊午士禍(1498), 甲子士禍(1504)로 많은 儒學者가 害를 입어 士氣가 極度로 떨어져 있었고, 燕山君의 暴政으로 社會는 더욱 不安하던 때였다. 그후 中宗의 反正(1507)이 成功하여 燕山君이 저지른 弊端을 復舊하는데 努力하여, 儒學者를 다시 登用하게 되었다. 이에 趙光祖는 道化政治에 힘쓰고 性理學을 獎勵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이를 猜忌하는 舊勢力인 南袞, 沈貞等の 兇計에 의하여 趙光祖의 新進 少壯派가 禍를 입고 沒落하는 己卯士禍(1519)를 당하게 된다. 이 때가 退溪가 出仕하기 五年前的 일이다. 退溪는 中宗 末年에 繼妣를 둘러싼 外戚싸움으로 다시 儒臣들이 禍를 입는 乙巳士禍(1545)를 四十五歲 때에 겪게 된다. 이처럼 우리 歷史上 셋을 수 없는 政治人들의 派閥싸움으로 儒臣과 學者들이 迫害 當한 四大士禍를 겪는 殺伐한 霧囂氣 속에서 退溪는 거의 生涯를 보내며 政治活動을 했던것이다

退溪의 政治論은 特히 戊午年의 辭職疏와 六條疏에 잘 나타나 있다. 特히 戊午辭職疏에서 退溪는 賢人政治를 理想으로 하여 賢者의 登用方法과 適才適所의 官吏配置에 관한 것을 論하고 있다. 그리고 戊午六條疏는 王을 爲해 바쳐진 六個項目으로 羅列된 退溪의 政治 思想書로서 그 要目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重繼統以全仁孝
- (2) 杜巍問以親兩宮
- (3) 敦聖學以立治本
- (4) 明道術以正人心
- (5) 推腹心以通耳目
- (6) 誠修省以承天受

以上の 六個項目 가운데 一, 二項은 나이 어린 宣祖가 旁系에서 養子로 王統을 繼承하였기 때문에 生家와 養家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處身하는가에 對한 進言條目이다. 其外 第五項은 民本에 바탕을 둔 賢人政治를 말한 것이며, 나머지 三個項은 모두 天命思想에 바탕을 둔 道義政治를 強調하고 있는 것으로, 要約해서 말하자면, 道義에 依한 政治는 하늘에 順應하는 것으로 興하고, 反對로 道義에 어긋난 政治는 하늘을 拒逆하는 것으로 滅亡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退溪의 官職生活은 道義를 바탕으로 한 政治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遍歷으로서, 그에게 있어서 政治란 道義를 無視하고는 전혀 생각할 수 조차 없다.

退溪는 實際 當時의 어지러운 官職生活에 別 興味를 갖지 않았다. 前述한바 文科初試에 壯元한 것은 三十三歲 때의 일이지만 벼슬길에 別 關心이 없었었다. 그러나 原來 집안살림이 넉넉지 못한데다가 兄大憲公伯母夫人의 勸誘도 있고해서 出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가 政界 隱退를 決心한 것은 四十五세 되던 明宗朝 以後인듯 보여지는데 其後 그는 官職에 除受될 때마다 身病, 老衰, 才能不足 등의 名目으로 辭任의 뜻을 表明하였다. 明宗 四年 監司에게 豊基郡守 辭任願을 提出한 以後, 七十高齡으로 마지막 政仕의 疏를 낼 때까지 무려 辭任狀만 하더라도 36回, 辭任啓가 14回, 辭任疏가 3回에 達하고 있다. 이러한 辭意는 或 當時에 있어서 士林間에 流行하던 官職除受上的의 節次에 不過한 것이 아닌가 하고 推測할지 모르나, 退溪가 그의 門人に 披露한 여러 書信을 參酌해 보면 決코 그런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중 한 두가지 例를 들면,

(1) 五十三세 때 曹健中에게 보낸 글 중에서 “濕은 天性이 質樸固陋하고, 또한 스승과 벗의 引導를 받지 못하여 小時로 부터 한갓 옛 것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고 몸에는 疾病이 많아, 親舊들이 或 傳하기를 ‘萬事를 그만 두고 뜻을 하고싶은데로 가져야 可히 病이 나올 수 있다’ 하였으며,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늙으셨기 때문에 억지로 科擧를 보아 利得과 祿俸을 取하게 되니, 濕이 그때에는 實로 見識이 없고 紳사리 남의 말에 움직여 한결같이 몸을 虛妄한 地境에 두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⁵⁾

5) 上揭書, 卷之十, 二面, 與曹健中 植·癸丑·昆資稟朴陋又無師友之導, 自少徒慕古之心, 身多疾病, 親舊或勸以放意, 越適則庶可以已疾, 復緣家貧親老, 強便之由科第取利祿, 昆當彼時實無見識, 輒爲人言所動, 一向措身於誕妄之地.

(2) 奇明彦에게 答하는 글 中에서 “混은 일찌기 黼어서 學問에 뜻을 두었으며, 士友의 指導가 없어서 아직 조금도 學問이 없었는데, 身病은 벌써 깊었습니다. 이 때를 當히여 바로 山林에 들어가서 一生을 마칠 計劃을 決定하여 草蓐을 짓고 高요한 處에서 詩를 읊고 뜻을 기쁨으로써, 이르지 못한 것을 더욱 더 求하여 230年 동안 工夫를 더 하였더라면 病이 반드시 나지 않지도 않았을 것이요, 學問에 반드시 成就가 없지도 않았을 것이니, 天下萬物이 나의 즐거움을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方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才能을 試驗하여 보고 不可할 處에 물러가려면 물러갈 수 있겠지 누가 또 나를 붙들어 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으니, 當初부터 오늘날과 옛날이 크게 다르고 우리나라와 中國이 같지 않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끝내는 去就의 義를 잊어버리고 致仕하는 禮法이 廢止되어, (나의) 虛名이 끼친 累는 오래일수록 더 심하여지고, 물러갈 道를 求하는 것은 갈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進退兩難이 되고 험뜰는 議論은 泰山같이 極度로 危胎롭고 조심스럽습니다.”⁶⁾

以上 두 글을 通하여 官界에 발을 들여 놓은 退溪가 뜻하지 않는 名聲으로 高官에 薦擢되어 官職에 拘束하다 보니 閑暇하게 學問하며 思索하는 겨를이 없어 못내 아쉬워하는 그의 心情을 엿볼 수 있다. 退溪는 일찌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山野의 性稟이라 爵祿이나 世上의 榮利를 避하여 故鄉의 조용한 山中에서 悠悠自適 讀書하며 平生에 道 닦기는 祈願하여, 官職에서 물러나기를 願했으나, 그 때마다 棄却 當하는 그였다. 이에 우리는 退溪의 本意가 學問에 있었지 政治에 있지 않았음은 그의 文集의 到處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4 教育者로서의 退源

教育學的 側面에 있어서의 退溪의 功績도 오늘날 높이 評價되고 있음은 事實이다. 이에 關해서 우선 特記할 事項은 退溪가 四十九세 되던 해에 豐基郡守로 있으면서 書院教育을 振作하여 地方教育을 育成한 點이다. 當時 우리나라의 教育機關은 中央에 成均館과 四學(中學, 西學, 東學, 南學)이 있었고 地方에는 鄉校가 있었으나 아직 書院教育은 普及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國學은 元來 有能한 선비들이 關與하여 格致저력 名目이 維持되었으나 郡縣에 所在하는 地方鄉校는 疲弊함이 極甚하여 선비들이 鄉校에서 지내는 것을 羞恥스럽게 여겼다. 이에 退溪는 中國에서 書院教育이 勃興한 史例에 따라 우

6) 上揭書, 卷之十六, 三面, 答奇明彦· 昆少嘗有志於學, 而無師友之導, 未少有得而身病已深矣. 當是時正宜決山林終老之計, 結茅靜處讀書養志, 以益求其所未至, 加之三數十年之功, 則未必不控, 學未必無成, 天下萬物如吾所樂何哉, 願不出此而從事於應舉覓官, 以爲我姑試之, 如或不可, 欲退則退, 誰復絆我, 初不知今時與古時大異, 我朝與中朝不同, 士志去就禮廢致仕, 虛名之累, 愈久愈甚, 求退之路轉行轉險, 至於今日進退兩難, 諺議如山而危慮極矣.

리나라에도 書院教育의 必要性을 切感하였던 것이다.

그는 學問을 일으키고 人材를 育成하는데 있어서는 國學보다는 書院教育이 훨씬 나으며 여러가지 利點이 있다고 보고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書院에서 取할 利點이 무엇이었고, 中國에서 書院 崇尚이 그와같은 것은 무엇때문이겠습니까? 隱居하여 뜻은 求하는 선비와 道學을 講明하고 業을 익히는 무리가, 흔히 世上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많은 책을 싸 짊어지고 생각하기 閑寂한 들과 高요한 물가로 逃避하여 先王의 道를 노대하고 高요한 가운데 天下의 義理를 두루 살펴서 그 德을 쌓으며, 仁을 익혀 이것으로서 樂을 삼는지라. 그 때문에 書院에 나가기를 즐기니, 저 國學이나 鄉校는 中央 또는 地方의 都市城郭안에 있어서, 한편으로 學습에 拘礙됨이 많고, 한편으로는 繁華한 環境에 誘惑되어 뜻을 바꾸게 하고 精神을 빼앗는 것과 比較하면 어찌 그 功效를 같이 比할 수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선비의 學問이 오직 書院에서 得勢할 뿐 아니라 나라에서 賢明한 人才를 얻는 것도 또한 반드시 이 書院에서 求하니, 저 國學이나 鄉校보다 優越한 것입니다.”⁷⁾ 退溪는 우리나라에 書院制度가 없어서 선비들의 士氣가 날로 衰退하게 되고, 生徒들이 날로 개오르며 散慢한 地境에 이르렀음과 옛 賢人이 後世에 名譽로운 이름을 남긴 이땅과, 이 땅 사람들의 創見하는 美德이 드디어 衰退하고 墜落하기에 이르렀음을 못내 두려워 하였던 것이다.

이에 “混은 이 고을에 赴任(豊基郡守)한 이래로 書院의 한 가지에만 그 마음을 정녕 다하고자 하여”⁸⁾ 宋代의 故事에 依據하여, 過去 豊基郡守로 있었던 周世鵬이 創建하였으며 文成公 安珪를 奉享하던 白雲洞書院에 對하여 王으로부터 書冊과 扁額을 내려줄 것을 監司 沈通原에게 建議하였는데, 監司가 이를 王에 誥하였더니 紹修書院이라는 扁額과 四書五經, 性理大全의 책이 내려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書院教育의 嚆矢는 退溪에 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退溪에 있어서의 教育은 現代 우리가 行하고 있는 바와 같은 分化된 教科教育이나 或은 專門의 知識의 習得이나 技術의 研磨와 같은 教育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卽 現代 各級 學敎에서 行하고 있는 教科教育에 該當할 當時의 禮樂射御書數의 六藝教育에 關한 事項이나, 또는 當時의 社會制度에 따른 機能教育이라 할 農工商의 學習에 關해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다. 退溪에 있어서의 學校는 “道義를 重히 여기고 禮

7) 上揭書, 卷之九, 四面, 上沈方伯通源·願何取於書院而中國之所尙如彼何哉, 隱居求志之士, 講道肄業之倫, 率多厭世之嚮競, 抱負墳策, 思逃於寬閑之野, 寂寞之濱以歌詠先王之道, 靜而闕天下之義理, 以盡其德以熟其仁以是爲樂故, 樂成於書院, 其視國學鄉校在朝城郭之中, 前有學令之拘礙, 後有異物之遷奪者, 其功效可同日而語哉, 由是言之, 非惟士之爲學得力於書院, 國家之得賢亦必於此而優於彼也

8) 上揭書, 同 六面, 混自到郡以來, 於書院一事未嘗不欲盡其心焉.

9) 上揭書, 卷之十二, 三十四面, 擬與豊基郡守論書院事 丁巳. 郡守 金慶言: 然猶知重道義尙禮讓, 彬彬手習於士君子之風

儀를崇尚할 줄 인며, 學行이 兼備한 士君子의 氣風을 익히는 곳”⁹⁾으로써 “스승은公私의 事故 以外에는 每日 一齊히 仕進하고, 仕進하면 반드시 禮를 行하며, 禮가 끝나면 講義는 始作하여, 날마다 常例로 삼을 것이요, 儒生들도 반드시 各各 禮服을 갖추어 一齊히 나와서 揖을 行하고 글을 읽어서 가르키을 請하여, 日用 飲食에 있어서도 禮儀속에 周旋하지 않음이 없어서, 오직 힘써 서로 警戒하고 激勵하여 묵은 習慣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들어가면 父兄을 섬기는 마음을 비루어서 나아가면 어른과 웃 사람을 섬기는 禮節에 移行하며, 인으로는 心과 息을 그로하고, 밖으로는 謙讓하고 恭順하며 各各 그 分殊를 다 하기를 생각하면 從前의 倨慢하고 사나우며 賤蔑하고 忽待하며 卑陋하고 悖勵하며 險하고 偏僻한 態度가 저절로 없어지고, 謙讓하고 恭順하고 好善好義하는 뜻이 自然히 드러나서 品格이 篤實하고 淳厚하여 나쁜 弊端을 一新하는 것이다.”¹⁰⁾

退溪는 後日에 紹修書院에서 이러한 道義와 禮節을 崇尚하는 風度가 살아져 荒廢해져 감을 몹시 안타까워 하여 榮川郡守 安瑞과 豊基郡守 金慶言에게 書院의 復興策을 이야기한 바 있거니와, 漢城의 四學에 있어서도 師弟間에 禮節이 行해지지 않고 道義가 잃어져 감을 慨嘆하여 諭四學師生文을 써 내기도 하였다. 退溪에 있어서 教育은 오직 人間의 道德化를 뜻하는 것으로써, 줄여 말하면 教育=道德이다.

5 道德人으로서의 退溪

지금까지 退溪를 哲學, 文學, 政治, 教育 등의 側面에서의 考察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考察은 그 어느 것도 道德에 歸着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萬若 退溪로부터 道德에 關한 要素를 除外해 버린다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皮相의 考察에 下過하다. 換言하면 그는 곧 道德의 化身이요, 그의 生涯는 바로 道德의 修練과 實踐 그것이였다. 道德的인 要素야말로 그의 人格과 學問과 思想을 理解하는 核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그의 人間像이 이와 같았음은 그의 言行錄에서 몇 가지 들추어 보는 것으로도 足하리라 본다.

(1) 「資品」 中에서

先生은 젊어서부터 타고난 性品이 道에 가까워서 精明溫粹하고 篤厚眞純하여 그 마음의 攄攄이나 行實이 모두 道義에서 나왔으며, 일찌기 한 번도 血氣에 의해서 움직인 적이 없었다. 平易明白함은 先生의 學問이요, 正大光明함은 先生의 道이다. 和風慶雲 같음은 先生의 德이며, 布帛菽粟처럼 담담함은 先生의 글이었다. 가슴속이 밝게 트이

10) 上摺書, 卷之四十一, 三十九面, 諭四學師生文 師生舍公私事故外, 必須逐日齊仕必行禮, 禮畢開講日以爲常, 諸生必須各具禮服, 講出行揖講書講益, 日用飲食無不周旋於禮義之中, 惟務更相勸勵濯舊習, 抽入事父兄之心, 移之爲出事其上之禮, 內主忠信而外行遜悌, 思以各盡其分, 則向之傲狠戾忽鄙悻險跛之態自然銷釋, 謙恭順和樂善好義之習油然而發, 風流篤厚一新剏弊,

어 秋月氷壺 같았고, 氣象은 溫和하고 純粹하여 精金美玉 같았다. 무거기는 山嶽 같았고 깊기는 못과 같았으니, 바라보면 德을 이룬 君子임을 알 수 있었다. (金誠一)¹¹⁾

(2) 「起居語默之節」 中에서

平常時에는 날이 새기 前에 일어나서 衾枕을 整頓하고 洗手하고 머리 빗고 衣冠을 바로 하고는 날마다 「小學」의 글대로 하였다. 조금 자라서는 書堂에 나갔는데, 비록 여러 사람과 함께 실때에도 반드시 얼굴 빛을 가다듬어 端正히 앉아서 옷이나 띠를 바꾸고 言行을 삼가서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先生을 愛而敬之해서 감히 倨慢하거나 없신 여기지 못했다. (金誠一)¹²⁾

(3) 「居家」 中에서

先生은 儉素한 것을 崇尚하였다. 洗手대야는 陶器를 썼고 앉는대는 갈대자리를 썼다 배옷과 실때에 짚신과 막대기를 썼는데 生活이 이처럼 담백하였다. 退溪의 집은 겨우 十餘架로 甚한 寒暑와 비에 남들은 견딜 수 없을 程度였으나 先生은 넉넉한듯이 여겼다. 한 번은 永川郡守 許時가 지나다가 先生을 뵈고는 “이렇게 비좁고 누추한데 어떻게 견디십니까?” 했더니, 先生은 천천히 “오랫동안 習慣이 되어서 困難한 것을 모릅니다” 하였다. (金誠一)¹³⁾

(4) 「處鄉」 中에서

시내 물을十里 밖에서 끌어오게 되고 물댈 곳은 넓어서, 멀리 있는 사람은 가물어도 물을 댈 수 없어 해마다 收穫이 없었다. 先生은 이것을 보고 “이것은 내 논이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밭으로 만든다면 물이 말라도 먹을 수 있지마는 저들은 논이 濕하지 않으면 農事를 지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곧 그 논을 밭으로 만들었다. 先生이 남의 事情을 미루어 생각함이 이러 하였다. (李德弘)¹⁵⁾

(5) 「居官」 中에서

그가 丹陽郡守를 辭任하고 떠날 때 그의 行裝은 쓸쓸하게도 두 個의 怪石뿐이었다. (金誠一)¹⁶⁾

豊基郡守를 辭任하고 歸家할 때는 行裝이 쓸쓸하여 오직 책 두어권이 있었을 뿐이었

11) 退溪先生言行錄, 卷之二, 九~十面, 資品 先生自少天資近道, 精明溫粹, 篤厚眞純, 其處心行事出於道義, 未嘗爲血氣所動, 又, 平易明白先生之學也, 正大光明先生之道也, 和風慶雲先生之德也, 布帛菽粟先生之文也, 襟懷洞澈如秋月氷壺, 氣象溫粹如精金美玉, 凝重如山嶽, 靜深如淵泉, 望之可知其爲成德君子 (金誠一)

12) 上揭書, 同十一面, 起居語默之節·平居, 未明而起, 歛衲袞篔, 盥櫛衣冠, 日以小學自律, 小長遊庠序, 睡羣居偃息之中, 必歛容端坐, 衣帶必節, 言行必謹, 人階愛而敬之, 人敢以侮加之. (金誠一)

13) 上揭書, 同十七面, 居家·先生, 雅尙儉素, 盥用陶器, 坐以蒲席, 布衣條帶, 蓆屨竹杖, 泊如也, 溪上之宅, 僅十餘架, 那寒暑而, 人所不覺, 而處之裕如也, 永川郡守許時, 嘗歷謁曰隘陋如此, 何以堪之, 先生徐曰, 習之已久, 不覺也, (金誠一)

다. 그리고 그 책을 담았던 빌린 장농들은 집에 와서 官卒을 갚아어 도로 돌려 주었다 (李安道)¹⁷⁾

(6) 「出處」中에서

“내 本來 孤陋하고 山野에 숨어 사는 사림이라 取한만한 조그마한 착함도 없고, 記錄할만한 한마디 말도 없는데 도리어 虛名으로 잘못 알려져서 벼슬의 任命이 잦았으니 부끄럽고 두려움을 견딜수 없다” 하였다. (李德弘)¹⁸⁾

(7) 「事君」中에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나아가나 물러가나 한결 같았다 或 한 가지 좋은 政令을 들으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나라의 措置가 못마땅하면 걱정이 얼굴에 나타났다. 日常 임금의 德을 도와 기르고 선비들을 붙들어 保護하는 것으로써 第一의 任務로 삼았다. (金誠一)¹⁹⁾

以上으로 退溪의 人間像을 哲人, 文人, 政治家, 教育者, 道德人과 같은 社會的 諸機能의 分類에 따라 考察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分類的 考察에도 不拘하고 眞正한 退溪의 人間像은 道德을 躬行하며 살아간 眞正한 道德人이라는 것에 歸着되었고, 따라서 其外 다른 領域에 있어서의 考察은 結局 道德을 바탕으로 두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可能的 것임을 알 수 있다.

Ⅲ. 聖學十圖進峯의 道德化

聖學十圖(第一太極圖, 第二西銘圖, 第三小學圖, 第四大學圖, 第五白鹿洞規圖, 第六心統性情圖, 第七仁說圖, 第八心學圖, 第九敬齋箴圖, 第十夙興夜寐箴圖)는 退溪가 六十八歲 되던 해인 1568年(宣祖元年) 12월에 製作하여 宣祖에게 바친 연 폭의 그림이다 이는 退溪가 別世하기 不過 2年 前의 일로서 晩年에 접어든 그가 모든 官職으로부터 致仕하기를 決心하고 어린 임금에게 바치는 마지막 愛君忠情의 道學圖이다. 따라서 聖學十圖는 그의 晩年의 門熟期에 深化된 道學의 總體의 集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15) 上揭書, 同二十六面, 處鄉: 溪流, 引十里外水小灌, 廣遠者旱不得潤, 先生曰是我水田在其上故也, 吾雖田之燥可食, 彼非水田濕不可穡, 卽田其水田, 其推恕及人如此 (李德弘)

16) 上揭書, 卷之三, 居官: 此(丹陽郡守)還, 行李蕭然, 只載二箇怪石而已. (金誠一)

17) 上揭書, 同, 居官: 解豐基歸家之日, 行李蕭然, 唯書籍數卷而已, 其所盛柁籠, 到家, 是付官卒. (李安道)

18) 上揭書, 同, 出處: 我本孤陋, 屏居山野, 無寸善可取, 無一言可記, 反爲虛名所誤, 荷命稠疊, 已不勝其愧懼 (李德弘)

19) 上揭書, 同, 事君: 愛君愛國之心, 不以能退而有間, 聞一政令之善, 喜不能寐, 或學措失官, 憂形於色, 常以輔養君德, 拱護上林, 爲先務. (金誠一)

關한 省察은 바로 그의 道德論의 核心을 理解하는 기틀이라 아니할 수 없다.

聖學은 그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聖賢의 道를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聖賢이라 함은 儒學에 있어서 우리 凡人이 마땅히 模範하여야 할 道德의 窮極的 標準人物이며, 그들의 道는 우리들의 思考, 行爲, 處事等이 指向할 絕對的 基準이다. 十圖는 곧 이러한 聖賢이 밝히고 行한 心法(道)를 圖解한 것으로 要約하면 聖學十圖는 聖賢道統을 爲한 「入道之門이요 積德之基」²⁰⁾이다.

그런데 入道니 積德이니 하는 말은 道德의 實踐的 概念으로 捕捉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聖學十圖를 배우고 익히기 爲해서는 十圖를 그저 보거나 暗記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몇가지 基本的인 態度가 必要하다.

1. 立 志

그 첫째는 先須立志이다.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하고자 하면 뜻을 세워야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 작은 뜻을 가지면 작은 길이 열리고, 큰 뜻을 가지면 큰 길이 열린다. 聖賢의 大志를 품는 者에게는 聖賢의 大道가 열리는 것이니 이에 退溪는 먼저 三皇五帝, 孔曾思孟, 周程張朱와 같은 聖賢의 道를 成就하려는 立志를 強調한다. 卽 그에 依하면 “마음이 아무리 靈妙한 것이라 하더라도 萬若에 그것이 主宰하는 바가 없으면 일을 當하여도 생각되지 아니하며, 또 理致가 顯著하고 切實한 것이라 하더라도 萬若에 보살피지 않으면 恒常 눈 앞에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法이므로”²¹⁾ 凡人은 恒時 聖賢과 같이하는 것을 自己의 任務로 하여, 顏子가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 亦若是”라 한 것처럼 참으로 先須立志하여 用力精進하여야만 的實平溫한 工夫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慎 思

聖學은 어느 程度로 깊이 思索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對한 成就의 如何가 決定된다. 때문에 退溪는 이 聖學十圖를 “圖式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것을 疏忽히 해서는 안된다”²²⁾고 警戒하고 있다.

聖學은 理를 窮究하여 그 道理에 따라 處身하는 것이다. 卽 마음(理性)으로 事物의 理致를 깊이 思索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思는 바로 學의 基本的 態度이다. 그러므로 孟子는 「心之官은 則思니, 思하면 得之하고 不思면 不得이라」 하였고, 箕子도 武王

20) 退溪先生文集, 卷之七, 五面 聖學十圖筭

21) 上揭書, 同, 七面 然而心之虛靈若無以主宰, 則事當前而不思, 理之顯實苦無以照管, 則日省接而不見

22) 上揭書, 同, 七面 此又因圖致思之不可忽巧

에게 洪範을 陳述할 때에 「思는 睿요, 睿하면 聖이 된다」 하여 愼思야말로 聖學道統하는 方法임을 우리에게 示唆하고 있다. 이에 退溪는 思索과 이룬 하는 마음을 說明하여 “마음은 人體에 갖추어진 至虛至實한 것이요, 理는 至顯至實한 것으로 結局 思索窮理함이란 이더한 至虛至實한 마음을 가지고 至顯至實한 理致를 깨 단는 것”²³⁾이라 하였다

3. 學

退溪에 있어서 學이라 함은 “일을 習得하여 참되게 實踐하는 것(習其事而眞踐理)으로, 이는 單純히 聖學을 읽고 쓰거나 외어서 道理에 關한 知識을 쌓거나 教養을 넓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行하고 實踐함으로써 習慣化 內面化하는 것이다.

따라서 前項의 思가 知的 理解에 屬하는 것이라면 이 學은 行的 態度에 置重하는 것으로, 이 兩者는 聖學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缺할 수 없는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어서, 이른바 孔子의 「學而不思면 罔이요, 思而不學이면 殆라」함이 그것이다. 이에 退溪는 “大抵 聖門의 學은 마음에서 愼思하여 求하지 않으면 어두워져서 언지 못하는 까닭에 반드시 마음으로 思索하여 聖學의 微妙한 곳에 通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나, 또한 思索하기만 하고 實踐하지 않는다면 危胎로워져서 不安한 까닭에 반드시 일을 배워서 그 實相對로 實行해야 한다 學과 思는 交相發하며 互相益한다”²⁴⁾

4 持 敬

聖學은 바로 聖賢道統하려는 立志思索과 勉學力行하는 態度로서 그 바탕은 持敬이다. 그러면 持敬이란 무엇인가? 退溪에 依하면 “만드시 齋莊靜一한 가운데 存心하고 學問 思辨하는 가운데 窮理하여, 不睹不聞之前에 이른바 戒懼함이 愈嚴愈敬할 것이요, 隱微 幽獨之處에 省察함이 愈精愈密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그림을 두고 생각할 적에는 마땅히 이 그림에만 專一하여 다른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며, 어느 한 일을 익힐 적에는 마땅히 이 일에 專一하여서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여 아침 저녁으로 늘 變함없이 行日每日 繼續하는 것이다”²⁵⁾ 要컨대 專心專力 誠心誠意를 다 하는 態度가 持敬이나. 至誠이면 感天이니 精神一判하여 誠實과 恭敬을 다 하는 데서야 何事不成이라 “持敬함에 있어서 비록 처음은 힘들고 거북스

23) 上揭書, 同, 七面 心具於方寸而至虛至靈, 理著於圖書而至顯至實, 以至虛至實之心, 求至顯實之理.

24) 上揭書, 同, 七面 蓋聖門之學不主諸心, 則昏而無得故, 必思以通其微, 不習其事, 則危而不安故, 必學以踐其實, 思與學交相發而互相益也

25) 上揭書, 同, 八面 其爲之之法, 必也存心齋莊靜一之中, 窮此理於學問思辨之際, 不睹不聞之前, 所以戒懼者愈嚴愈敬, 隱微幽獨之處, 所以省察者愈精愈密, 就一圖而思則當專一於此圖, 而如不知有此圖, 就一事而習則當專一於此事, 而如不知有他事, 朝焉夕焉而有常, 今日明日而相續.

러운 點이 있다 하더라도 ···· 침고 오래도록 힘쓰면 自然히 마음과 理가 相涵하고 不知識問에 融會貫通하여, 翫과 事가 相熟하고 漸次 順坦하여”²⁶⁾ 別로 힘들이지 않고 聖學道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持敬을 通해서 비로소 우리의 德行이 彝倫에서 벗어나지 않을뿐 아니라, 또한 天人一體의 妙理도 얻을 수 있다 退溪는 孟顏曾思의 學이 모두 그러한 것으로 孟子의 深造自得, 顏子의 不遠仁, 曾子의 忠恕一貫, 子思의 致中和는 敬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하였다.

5. 德化 雰圍氣

通常 人間의 道德性은 環境과 個體間의 交互作用에 依하여 形成된다고 한다. 孟母三遷之教라는 것이 그 좋은 例이려니와, 이것은 環境이 道德性의 形成發達에 미치는 影響이 얼마나 重要한가를 示唆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退溪도 道德的인 修練을 해나감에 있어서 單純히 持敬하는 마음가짐 뿐만 아니라 보다 積極的으로 모든 環境物을 道德的인 雰圍氣로 轉換할 것을 提議하고 있다. 그래서 不道德한 環境에서 不道德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消極的으로 惡에 빠질 要因을 除去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보다 道德心을 일깨우고 警戒하는 積極的인 方法을 講究하여, 每樣 接觸하는 人物은 勿論, 日用生活 必需品에 이르기까지 環境全部를 道德心을 昂揚하는 環境으로 扮裝할 것을 王에게 다음과 같이 勸誘하고 있다.

“王을 굳게 諫하는 職責을 만들어서 앞에는 疑가 있고, 뒤에는 丞이 있으며, 왼 쪽에는 輔가 있고, 오른 쪽에는 弼이 있으며, 수레를 탈 때는 旅賁의 規가 있고 位宇에는 官師의 典이 있고, 倚几에는 訓誦의 諫이 있고 居寢에는 近侍의 箴이 있으며, 臨事에는 韓史의 導가 있고 宴居에는 工師의 誦이 있으며, 盤, 盂, 几, 杖, 刀, 劍, 戶牖할 것 없이 무릇 눈이 가는 곳과 몸이 處하는 곳마다 有銘有戒함이 아닌 곳이 없읍니다”²⁷⁾

以上은 退溪가 君王을 爲해 한 말이지만 이러한 道德的 環境의 淨化는 非但 君王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通用되어져야 할 事項이라 하겠다.

道德은 모든 學問과 生活의 基盤으로서, 지킬 때가 있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一心의 善惡幾微는 環境과 雰圍氣에 依하여 分岐되므로 우리는 恒時 兢兢業業하고 小心畏懼하여 行動하고 處身하되, 오히려 未恰할까 두려워 하여 눈이 가는 곳과 몸이 處하는 周圍環境의 모든 것이 有銘有戒함이 아닌 것이 없게 하여

26) 上揭書, 同, 八面: 其初猶未免或有掣肘矛盾之患 一至於精眞之多用力之久, 自然心與理相涵, 而不覺其融會貫通” 習其事相熟而漸見其坦泰安履

27) 上揭書, 同, 十五, ~六面: 前有疑後有丞左有輔右有弼, 在輿有於賁之規, 位宇有師之典, 倚几有訓誦之諫, 居寢有警御之箴, 臨事有韓史之導, 宴居有工師之誦, 以至盤盂几杖刀劍戶牖, 凡目之所寓身之所處, 無不有銘有戒

야 한다 하겠나

IV. 道德의 段階的 修練—「小學」「大學」

退溪는 聖學十圖 中の 「小學」「大學」이 나머지 여덟개의와 關係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大低 위의 두 그림(大極圖, 西銘圖)은 根本을 求하여 이것을 根元으로하여 擴充해서 萬物의 根本을 本만고 道를 다하는 極致로 「小學」「大學」의 木原이 되는 것이다 다음 六圖(白鹿洞規圖, 心統性情圖, 仁說圖, 心學圖, 敬齋箴圖, 夙興夜寐箴圖)는 誠身, 崇德, 廣業 用力하는 곳이니, 이것은 “「小學」「大學」을 根據로 하는 田地의 完成이 되는 것이다.”²⁸⁾ 即 「小學」「大學」은 聖學을 成就하는 基틀로서 重要한 意義를 갖는 것이므로 이에 關하여 若問 言及해 보고자 한다.

儒敎는 原來 人間의 本性이 至善하여 天理에 符合하며 仁義禮智의 性品을 具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仁義禮智의 四德을 그대로 維持 發現할 能力의 所有者는 오직 聖人뿐이요, 偏僻된 氣質의 性을 타고난 우리들 凡人은 꾸준한 修養을 하지 않으면 자못 物慾에 빠져서 本然의 性에서 멀어지고 惡으로 흐르기 쉽다. 이에 人間은 木性인 天理를 回復하기 爲하여 不斷한 修練을 強化하는 道德敎育을 必要로 한다.

大體로 우리가 敎育을 成人의 敎育과 兒童의 敎育으로 分類한다면 「大學」은 成人을 爲한 敎育이요, 「小學」은 兒童을 爲한 敎育이다. 그러나 成人 兒童으로 區分했다해서 敎育의 趣旨가 別個의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道德의 修練이요, 또한 이 兩者는 하나의 敬으로 貫通되어 相待而成한다. 換言하면 「小學」은 「大學」의 基礎요, 「大學」은 「小學」의 成果라 할 수 있다. “大學 小學은 大小는 같지 않으나 그 道는 하나 뿐이다. 少時에 「小學」을 不習하면 收放心, 養德性할 수 없어 「大學」의 基本이 될 수 없고 「大學」으로 나아갈 수 없다. 또 大學을 不習하면 聖賢의 義理를 밝힐 수 없다.”²⁹⁾ 即 成人이 배우고 닦는 「大學」은 事物의 理致를 窮究하는 格物 致知와, 良心을 回復하는 誠意 正心 乃至 이의 外的 擴充인 濟家, 治國, 平天下의 八條目을 內容으로 한 것들인데 이들은 「小學」의 灑掃應對進退의 禮節과 愛親 敬長 隆師 親友의 法度가 갖추어진 然後에 可能한 것이다.

1 「小 學」

小學은 內篇과 外篇으로 되어 있다. 內篇은 立敎, 明倫, 敬身, 稽古의 네 篇으로 짜

28) 上揭書, 同, 二十面 大學經 爲小學大學之田之事功

29) 上揭書, 同, 十六面 小學題辭: 學之大小固有不同, 然其爲道則一而已, 是以方其幼也, 不習之於小學, 則無以收其放心養其性, 而爲大學之基本, 及其也不進之於大學, 則無以察夫義理措諸事某

여져 있으며, 外篇은 嘉言, 善行의 두 篇으로 짜여져 있다

立教는 우리 兒童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明倫은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의 人倫關係에서 지켜야 할 道理를 밝힌 것이며

敬身은 心術, 威儀, 衣服, 飲食 等に 있어서 몸가짐을 삼가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稽古는 위의 立教, 明倫, 敬身에 關한 三代 聖賢들의 善行한 史蹟을 記述하고 있다.

外篇의 嘉言, 善行은 다시 各各 廣立教, 廣明倫, 廣敬身과 實立教, 實明倫, 實敬身으로 나누어진다.

要컨데 「小學」은 立教, 明倫, 敬身으로 壓縮될 수 있는 것으로, 이들 道德教育의 內容들은 兒童들의 生活과 距離가 먼 것이 아니라 그들의 生活 周遊에서 體驗하고 實踐할 수 있는 平易하고 明白한 事項들을 收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禮儀凡節과 基礎的 倫理事項은 어떤 知識의 習得을 通하여 하루아침에 갑자기 成就되는 것이 아니라, 反復學習을 通한 習慣形成이 必要하므로, 이를 爲하여 人間에게 있어서의 道德教育은 어린 時節부터 徹底하게 賦課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兒童들이 비록 「小學」에서 賦課된 事項들을 다 마쳐, 餘暇가 或 생긴다 하더라도 이 餘暇마저 그들에게 마음대로 내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萬에 하나라도 法度에서 벗어나거나 邪念에 빠지지 않도록 細心한 注意를 해야 한다. 이에 小學之方은 灑掃應對하며 入孝出恭하여 動罔或悖니 行有餘力이어든 誦詩讀書하며 詠歌舞蹈하여 思罔或逾게 하여, 自身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習性和 知性이 함께 成長하고, 밖에서 오는 教化의 힘과 自己 內部에서 생기는 精神의 姿勢가 함께 이루어져서 그 사이에 아무런 抵抗이나 衝突을 일으키는 일이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大 學」

少年時節에 拏敬하는 工夫로서 「小學」을 거치면 「大學」을 배워야 한다. 「大學」은 人間處世의 基準이요, 道德의 統體的 根本이다. 學者가 學問하는데 必要한 入門書일뿐 아니라 또한 萬人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大道이다. 뿐만 아니라 道學의 나아갈 方向을 順序에 따라 條理있고 體系的으로 叙述하고 있어, 이처럼 體系를 따라 論理的으로 集約된 經書는 四書 中에서도 으뜸으로, 程子 亦是 “初學 入德之門은 大學만한 것이 없다” 하였다.

大學의 要領은 三綱領과 八條目이다. 三綱領이라 함은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이요, 八條目이라 함은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다. 大學은 이들을 學問하는 方法과 順序에 따라 記述한 것이다.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다. 그런데 古之欲明明德於天

下者는 先治其國하고, 欲治其國者는 先齊其家하고, 欲齊其家者는 先修其身하고, 欲修其身者는 先正其心하고, 欲正其心者는 先誠其意하고, 欲誠其意者는 先致其知하니 致知는 在格物한다 故로 物格而後에 知至하고, 知至而後에 意誠하고 意誠而後에 心正하고, 心正而後에 身修하고, 身修而後에 家齊하고, 家齊而後에 國治하고, 國治而後에 天下平」하는 것이다.

여기서 明明德은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虛靈不昧(心을 말함)하여, 모든 理致를 갖추어(性을 말함) 萬事에 應用(情을 말함)을 밝힌 것이요, 新民은 革新을 뜻하는 것으로 밝힌 明德으로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며, 止於至善은 事物의 當然한 極致에 머물어 옮기지 않는 것으로 人欲의 絶無狀態이며, 天理를 回復해서 이를 다한 狀態이다

그런데 以上の 三綱領은 各項이 따로 分離되어 있는 別個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道理로 貫通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八條目 또한 三綱領에 根據하여 成立한다.

八條目은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順序로 工夫해 나아감에 있다 하겠는데, 이들을 理에서 말한다면 格致는 是窮此理함이요, 誠正修는 是體此理함이며, 齊治平은 是措此理함이다. 即 格致는 知의 領域에 屬하며, 誠正修는 行의 領域에 屬한다. 그리고 이 知行兩者는 모두 明明德에 該當되는 事項으로 그것은 또한 至善의 所有와 이의 獲得이기도 하다. 그다음 齊治平은 修身의 推行이며 新民에 該當되는 事項이요, 또한 止於至善을 이룩함이 된다. 이에 明明德은 本體요, 新民은 末用이며, 止於至善은 體用의 標的인 것이니, 物有本末하고 事有終始하므로 知所先後면 則 近道矣라 하겠다.

그래서 退溪는 八條目 가운데도 특히 格物 致知를 重要視하고 있다. 왜냐하면 格致는 八條目の 根本이요, 出發로서 根本과 出發이 어지러워지면 末端에 다스려지는 法이 없기 때문이다.

致는 미루어 極盡함(措極也)이요, 知는 깨달음(誠也)을 뜻하는 것으로, 致知라 함은 나의 知識을 미루어 極盡히 하여 아는 바를 다하지 않음이 없게 하고자 함(措極吾之知識, 欲其所知無不盡也)이다.

格은 이른다(格物의 格은 窮, 物格의 格은 至의 뜻임)의 뜻이며, 物은 事라는 뜻으로, 格物이라 함은 事物의 理致를 窮究하여 그 極盡한 곳에 到達하지 않음을 없게 하는 것(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也)이다.

그리고 物格而後知止의 物格은 事物이 理致의 極盡한 곳에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物理之極處無不到也)이요, 知至라 함은 나의 마음의 아는 바가 다하지 않음이 없는 것(吾心之所知無不盡也)이다. 物格과 知至는 只是一事로, 事物의 理致로 말하면 物格이요, 나의 마음으로 말하면 知至이다. 要컨대 客觀의 對象과 主觀의 認識은 同

一한 것으로서 合致한다.

大學의 三綱領과 八條目은 要約하면 修己治人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먼저 理致와 道理를 깨닫고 體驗하여 自己 몸을 닦은 然後에 남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는 世上 사람들이 自己 몸 하나 제대로 닦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고 支配코저 함은 極히 危險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人間은 무엇보다 먼저 自己의 道德的 修養과 道德性의 形成을 萬事의 先行的 要件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自身에 있어서 아는것을 다하면 뜻이 곧 誠實해질 것이요, 뜻이 誠實하면 마음이 발라서 修身도 할 수 있고, 나아가 家庭, 社會, 國家, 世界의 平和와 人類의 幸福에로의 前進과 寄與도 可能한 것이다. 이렇듯 道德的 修練은 萬事의 根本으로서, 自我에서 他我에로, 個體에서 全體에로, 主體에서 客體에로, 道德에서 政治에로 進行한다. 道德은 政治의 根本이요, 政治는 道德의 末端이다. 根本인 道德이 이루어진 然後라야 政治도 可能할 수 있다.

그런데 退溪에 있어서 萬事의 根元은 道德인데 이 道德은 敬에서 出發하여 敬으로 一貫한다. 「小學」이 敬에 依하지 않고는 始初가 될 수 없음을 알 것이요, 「小學」이 이에 應하여 始初가 되면 「大學」이 이에 依하지 않고서는 마지막이 될 수 없음을 一貫하여 疑心할 수가 없을 것이다. 大抵 이 마음이 이미 서 있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事物을 研究하고 知識을 明確히 하여 事物의 理致를 다하면 이것은 이른바 德性을 높이고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誠實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그 몸을 닦으면, 이것은 이른바 먼저 그 큰 것을 새우면 작은 것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요, 이것으로 困하여 집을 整頓하고 나라를 다스려 天下에까지 미치면, 이것은 이른바 몸을 닦아서 百姓을 平安하게 하고 恭順함을 篤實히 하여 天下를 和平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하루라도 敬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敬이라는 이 한 글자가 어찌 聖學의 처음과 마침이 되는 要緊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었다.³⁰⁾

V. 天人一體觀——「易」「天命」「西銘」

退溪의 人生觀乃至 世界觀은 天人一體思想에 깊이 뿌리 박고 있다. 卽 그에 있어서

30) 上揭書, 同, 十九面 大學經: 知小學之不能無賴於此(敬), 以爲始知小學之賴此以始, 則夫大學之不能無賴於此以爲終者, 可以一以貫之而無疑矣, 蓋此心既立, 由是格物致知, 以盡事物之理, 則所謂尊德性而道問學, 由是誠意正心以修其身, 則所謂先立其大者而小者不能奪, 由是齊家治國以及乎天下, 則所謂修己以安百姓, 篤恭而天下乎, 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

存在本質인 天(天理, 天命)과 宇宙의 理法은 根元에 있어서 人間과 人間世界の 秩序와 同一한 것으로 볼 뿐 아니라, 나아가서 人間の 思惟나 道德 倫理와 같은 精神 乃至 規範領域조차 이것과 合致하는 것으로 解釋함으로써, 이같은 天人一事 乃至 天人一體思想은 退溪學의 中心을 이루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天地自然과 人間을 融合爲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傾向은 自然히 存在論과 宇宙論, 人性論이 하나로 渾論浸透되어, 事實上 그 限界를 分別하기가 어려울 程度이다.

退溪의 이와같은 思想은 特히 周易, 太極圖說, 天命圖說, 西銘考證講義와 같은 論文 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大體로 이들은 周易의 太極陰陽思想에 源泉을 둔것이라 하겠다. 이에 易經에 나타난 人間 自然의 一體觀을 叙述하고 이어 天命圖說과 西銘에 關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1. 周 易

退溪는 二十歲 때에 周易을 읽으며 그 뜻을 講究하느라고 거의 寢食을 잊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健康을 해치게 되어 平生의 持病人 胃腸病에까지 걸렸었다고 한다. 易은 그가 研究 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熱中하고 心醉했던 것인만큼 그의 思想을 形成하는 過程에 있어서 重要한 契機가 되었을뿐 아니라, 또한 그의 天人一體觀도 여기에 깊이 關聯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易은 宇宙, 自然 및 森羅萬相의 모든 生成消滅과 變化에 關한 解釋을 陰陽의 動靜과 剛柔, 消長 等에 依하여 說明하고 있다 따라서 이 陰陽은 天地間의 모든 것의 氣運이요 原動力으로써 이러한 陰陽에 依하여 모든 것을 解釋하려는 自然哲學的 思想은 同時에 人間の 肉體와 精神, 그리고 모든 人間事와 人間關係에 있어서 까지 徹底하게 適用하여 結局自然과 人間을 不可分離의 同一한 法則關係라고 보는 것이 易思想의 骨子이다.

이에 陰陽은 天之道요, 剛柔는 地之道이며, 仁義는 人之道로써, 天·地·人의 三才는 同一한 法則에 依하므로 陽剛과 陰柔義도 一은 하나의 道이다. 即 陰陽의 動靜이 象을 이룬 것이 天道요, 陰陽의 剛柔가 質을 이룬 것이 地道이며 陰陽의 仁義가 德을 이룬 것이 人道로써 原來는 하나의 陰陽인 것이다. 이와같이 易은 하나의 陰과 하나의 陽이 相互 對立하면서 變轉하여 끊임 없이 進行함을 그 原理로 한다.

따라서 易은 自然哲學書인 同時에 人生哲學書이기도 하다. 大宇宙의 法理를 模範해서 人間の 事理를 規定함을 그 原理로 하고 있으며, 自然의 物象에 依據하여 人間事를 解釋함을 그의 內容으로 하고 있다.

易은 生生을 原理로 함으로써 天地創育의 大德을 갖고 있다. 剛柔相拚而生變化가 그것이다. 易은 비록 大自然의 主宰의인 人格神은 아니되 온전한 德性을 가지며, 따라

서 그것에 依하여 生成된 萬物도 亦是 各各個體마다 德性이 없을 수 없다. 이에 人間도 自然의 一物이므로 德性을 갖임은 勿論 例外일 수 없다. 特히 人間은 萬物 中에서도 得其秀한 存在者로서 「可以從天地之化育하며, 可以與天地之參矣」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이러한 易의 原理에 順從함으로써 德을 높이고 仁義의 實踐을 擴張해 갈 수 있는 것이다.

易經 繫辭上傳 第七章에서 孔子는 “易經은 그 偉大한 것인저 . 聖人은 이로써 道德을 崇尚하고 事業을 擴充한다. 知慧는 崇高하고 禮節은 卑近하니, 崇高함은 上天을 效함이요, 卑近함은 下地를 法함이다. 天地가 그 地位에 있는데 易道는 그 中間에서 行하고 있으니, 人間의 本性을 養成하고 그의 存在를 保存하는 道義의 門인 것이다”.³¹⁾ 하였으니 易經은 實로 天地自然은 認識하는 知慧를 갖이고서 崇德廣業하고 開物成性함을 우리 人間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또 易은 “一陰一陽을 道라 하는데 이를 잘 繼承하면 善이요, 이를 잘 이룩하면 人間의 性品이 되는 것이라”³²⁾하고 있다. 換言하면 自然의 法則에 順應하는 것은 仁者요 善하며, 反對로 自然의 法則에 扞逆하여 利欲에 어두우면 小人이요 惡이 되는 것으로, 道德의 善惡을 自然의 理法과의 合致如否로 보는 凡神論的 倫理思想을 強하게 들어 내고 있다. 卽 繫辭上傳 四章에 “이 天地의 道를 보고 仁으로 기우는 것을 仁이라고 規定하고, 知에 기우는 것을 知라고 規定한다. 仁者도 知者도 아닌 一般大衆은 이道를 따라서 生活하고 있으나 그것을 自覺하지 못한다”³³⁾고 하고 있으며, 또 繫辭下傳 五章에서 “小人은 不仁을 羞恥 스텁게 여기지 않고 不義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利를 가지고 피이지 않으면 善을 行하려고 하지 않는다. 法을 가지고 威脅하지 않으면 惡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 또 若問의 善行같은 것은 利益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는 行하려고 하지 않으며, 若問의 惡行따위는 그리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며 中止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듯 惡行을 쌓아가는 가운데서 마침내 몸의 破滅을 避할 수 없게 된다. ”³⁴⁾하였다.

끝으로 易思想에서 우리가 看過해서는 안 될 하나의 重要的 事實은 陰陽의 消長에 依한 變化하는 事物의 裏面에는 不變하는 어떤 實體가 있다고 하는 點이다. 卽 自然속의 萬物은 變化하나, 變化하는 것은 陰陽의 作用이요, 自然 그 自體는 不變하는 것

31) 周易, 繫辭上傳, 七章·子曰 易其至矣乎, 夫易, 聖人所以崇德廣業也, 知崇禮卑, 崇效天卑地法, 天地設位, 而易行乎其中矣.

32) 上揭書, 同, 四章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33) 上揭書, 同, 四章 仁者見之, 謂之仁, 知者見之, 謂之知, 百姓日用而不知, 故君子之道, 鮮矣

34) 上揭書, 繫辭下傳, 五章 子曰, 小人不能不仁, 不畏不義, 不見利不勸, 不威不懲 善不積不足以成名, 惡不積不足以滅身, 小人以小善爲无益而弗爲也, 以小惡爲无傷而弗去也, 故惡積而不可掩, 罪大而不可解

이니, 이 不變하는 實體가 곧 太極이다. 그러므로 易經은 비록 陰陽의 曄라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二元論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陰陽이라는 相待는 반드시 大極이라는 統一體속에서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易經은 太極一元論이요, 陰陽은 이 太極에 依하여 形成한 것으로서 繫辭上傳 十一章의 “易有太極, 是生兩儀”가 바로 그것이다 卽 易經思想의 全體는 太極이요, 陰陽은 그 全體속에서 運動하는 部分에 不過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天命圖說

1) 理와 氣

天地萬物은 陰陽五行의 氣運을 받아 形象化한 것인데, 이 陰陽이 五行으로 流行할 즈음에 天(=太極, 理)의 四德인 元亨利貞도 恒常 그 가운데 있으면서 萬物을 命하는 根元이 된다. 그러므로 萬物中の 하나인 人間도 이러한 生成原理에서 例外일 수 없다

그런데 이 理를 人間에 있어서는 性이라 하는 것이니, 中庸의 「天命之謂性」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天常의 德인 元亨利貞은 人間에 있어서는 仁義禮智가 되는 것으로, 이를 人性之綱이라 한다. 따라서 天常之道와 人性之綱은 但只 一의 한 理致요, 決코 天과 人 사이에 區分이 있는 것이 아니다

天地間의 모든 것은 理와 氣(陰陽 五行)에 依한 生成物로서, 이 理와 氣는 相互浸透되어 不相離의 關係이다. 그러나 그 次元이나 分殊에 있어서 다른 것이 없을 수 없을 것인즉 서로 分別함이 또한 없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論理的 側面에서 본다면 理와 氣는 不相雜하여 理自理, 氣自氣가 된다. 이때 理는 將帥가 되고 氣는 卒兵과 같은 關係를 가진다

2) 人과 物

人과 物이 다 같이 理와 氣에 依하여 形成된 것임에도 不拘하고 서로 相異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 相異한 까닭은 理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氣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理는 本是 空虛한 것이다. 때문에 相對가 없는 것으로 또한 人과 物에 忒라 加損되지 않는다. 卽 人과 物의 性은 同一한 天地의 理致를 가지고 있어서 사이가 없다 하겠다

그러나 氣는 陰陽이 對立하여 動靜 하고 剛柔 消長하는 것이기 때문에 相對가 있는 것으로, 形體는 氣의 偏正에 따라 差異가 없을 수 없음으로 人과 物사이에 다름이 생긴다. 이에 陰陽의 正氣를 稟受한 것이 人이 되고 偏氣를 稟受한 것이 物이 된다 하겠다. 人과 物의 니름은 바로 이 陰陽 二氣의 所致이다.

3) 心

虛靈한 마음은 理와 氣의 집인 것으로 理氣는 그의 집인 마음이 아니면 붙일 곳이

없다. 그런데 마음의 理는 性이며 그 流行의 道인 元亨利貞은 性에 있어서 仁義禮智가 되는 것으로서 純善無惡하다.

이 性이 發하면 情이 되는데 四德인 仁義禮智가 發하여 情이 되면 惻隱, 羞惡, 辭讓, 是非之心의 四端이 되는 것으로 이 또한 純善無惡하다 하겠다. 그러나 情에는 이 四端以外에도 禮記에서 말하는 喜怒哀懼愛惡慾의 七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四端과 七情의 關係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된다. 이 때문에 退溪와 高峰은 무려 八年間이나 서로 論辨하였던 것이다

마음은 理뿐만 아니라 氣를 또한 갖고 있는 것인 즉, 이 陰陽에 依한 氣質之性은 木然之性과 달라 設令 이 것에서 發한 것이 正이라 하더라도 邪惡에 흐르기 쉽다고 한다 그렇다면 四端은 人之性인 五常과 天之道인 四德에 淵源한다 할 수 있으나 七情의 情은 어디에 歸屬 시켜야 할 것인가? 마음은 性情을 統攝하고 있는 까닭에 七情 亦是 마음 以外의 것일 수 없다. 이에 退溪는 “오직 七情의 나옴이 (四端과) 參差 하듯 하나 類로써 미루어 보면 또한 各各 合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天과 人이 一體가 되는 까닭이라.”³⁵⁾ 하였다. 다만 七情과 그것이 發한바가 天理의 公을 따라 本來있는 그대로에 順하면 善正이 되고, 人欲의 私가 끼어 들어 本來 없는 것으로 이그러지면 邪惡이 될 뿐이다

4) 上智·下愚

사람은 氣가 바르기는 하나 氣質의 타고남에 清濁粹駁이 없을 수 없는 것인즉, 이에 따라 氣質이 清粹하면 上智가 되어서 天理를 밝게 알 수 있고 行할 수 있으며, 反對로 氣質이 濁駁하면 下愚가 되어서 天理의 아는 것이 어둡고 行하는 바가 好邪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上智에 있어서나 下愚에 있어서나 理는 다 같이 分有하고 있으므로 비록 下愚라 하더라도 本來의 天理를 따라 擴而充之하는데, 힘쓰면 上智에 到達할 수 있으며, 反對로 上智에 있어서나 下愚에 있어서나 다 같이 氣를 分有하고 있으므로 비록 上智라 하더라도 惟精惟一, 博文約禮, 格致改正, 擇乎固執과 같은 居敬窮理를 하지 않으면 下愚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즉 “學問의 道는 氣質의 美惡에 베이지 않고 오직 天理를 아는데 밝은가 밝지 못한가, 或은 天理를 行하는데 다 하는가 다 하지 못하는가의 如何에 달려 있다”³⁶⁾ 하겠다.

특히 이러한 天理를 保存하고 바루는데는 敬만한 것이 없으니, 敬이란 不動時에는

35) 退溪先生續集卷之八 十八面 天命圖說 第七節 論性情之日 唯七情之分, 似爲參差, 然以類推之, 亦各有合焉 此天人之所以爲一體也

36) 上揭書, 同, 十九面 第九節 論氣質之駁 然則學問之道, 不係於氣質之美惡, 推在知天理之明不明, 行天理之盡不盡如何耳.

本性을 存養함이요, 情愆가 發할 때에는 省察하는 것으로, “敬은 聖學의 始終이며 體用을 貫通한다

3. 西 銘

1) 理一所以爲仁

聖學十圖 가운데에 있는 第二西銘圖는 來原 張橫渠의 著作이다. 그는 이 西銘圖를 通하여 孝子が 어버이를 섬기는 것을 미루어 하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을 것(因事親之至誠 而明事天之道)³⁷⁾을 여러 道理에 따라 說明한 것을 退溪가 圖式化한 것이다.

西銘은 天人一體觀의인 世界觀을 통한 敬天思想을 具體化 하여, 天과 我, 全體와 個體와의 關係가 本來 하나의 理致이기 때문에 人間이 倫理關係에 있어서 孝를 바탕으로 하고 있듯이 하늘에 대해서도 父母에게 孝로 對하듯 敬畏事天 할 것을 強調한 것이다. 이것은 禮記의 哀公 問篇에서 孔子가 哀公에게 “어진 사람은 어버이 섬기기를 하늘 섬기는 것과 같이 하고, 하늘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는 것과 같이 한다(仁人之事親也如事天, 事天如事親)³⁸⁾”에서 由來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西銘은 하늘 섬기는 方法을 于時保之子之翼에 比喩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늘의 威嚴을 두려워하여 하늘이 굽어 살피는 뜻을 保存하며 그것에 順從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늘을 敬畏하는 마음을 가지고 順從할 때에 비로소 人間은 純善無惡한 本然의 姿勢로 向할 수 있다. 또 西銘은 前漢 刑法志 속에 있는 “사람은 天地를 踐形한다”³⁹⁾는 것을 들고 있다. 사람은 例컨대 그 身體가 圓頭方角함은 바로 自然에 있어서의 圓天地方 함을 形象한 것이며, 사람의 體貌와 얼굴 빛은 天性을 나타 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聖愚의 여러 等級이 있어서, 오직 聖人만이 天을 踐形하고 小人은 不肖한다. 또 人間은 그 外貌 뿐만이 아니라 心性에 있어서 까지 天理와 같은 것으로 例컨대 朱子에 依하면 “마음이린 사람의 神明함이 여러가지 理致를 갖추어 온갖 일에 對應하는 것이요, 性이라는 것은 마음에 갖추어 있는 理이고 하늘은 또 이 理가 좃아 나오는 것”⁴⁰⁾이라 하였고, 程子は “理니 性이니 天이니 하는 것은 同一한 理致이다. 理에서 말하면 天이요, 사람의 稟受에서 말하면 性이요, 사람에게 存在하는 것을 말하면 心이라”⁴¹⁾ 하였음이 그것이다. 이처럼 人間의

37) 退溪先生文集 卷之七 六十面 西銘考證講義

38) 上揭書, 同, 六十面

39) 上揭書, 同, 五十五面 人有天地之貌

40) 上揭書, 同, 五十六面 心者, 人之神明所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性則心之所具之理, 而天又理之所從出者也

41) 上揭書, 同, 五十六面 心也性之天也, 一理也, 自理而言謂之天, 自稟受而言謂之性, 自存諸人而言謂之心

存在는 비록 天地自然의 一部에 不過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몸과 마음은 天地自然과 同一한 形態, 同一한 根據와 法則에 依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存在는 비록 微少하다 하더라도 이를 擴張하면 그것이 바로 廣大無垠인 天地之心, 天地之體와 同一하게 混然一切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孔子는 이러한 天命 天理를 알고 이를 保存하며, 天性을 기르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2) 理分殊所以爲義

天理는 事物을 떠나서 따로 비고 虛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天理는 物을 떠나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며, 物을 떠나면 그것은 天理의 道가 아니다. 君臣間에는 義理가 있는 法인데 이 義理는 天理가 君臣間에 나타난 道요, 父子間에는 親愛함이 있는 法인데 이 親愛함은 天理가 父子間에 나타난 道이다. 같은 方法으로 夫婦間에는 分別의 道가 있고, 長幼間에는 順序의 道가 있으며, 朋友間에는 信義의 道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모두 天理가 거기에 나타난 道이다.

또 이를 類推하여 事物을 볼 때, 天理를 共有하고 있는 萬物은 그 分殊에 따라 各各 마땅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事物의 均衡을 살펴 그 事物의 理致에 따라 公平하게 배풀어야 한다. 그리고 父子, 君臣, 人物, 同胞의 다름과 長幼, 聖賢, 貴賤의 分殊가 다름을 알고 그 分殊에 알맞게 處理해야 하는 것이니 例컨대 아버이를 아버지로 섬기고,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며, 어린이를 어린이로 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같이 事理의 마땅한 바를 境遇에 따라하는 決斷이 義인 것으로, 理分殊所以爲義이다.

이러한 理分殊의 思想은 바로 孟子가 말한 “아버이를 親한 뒤에 百姓들에게 仁하게 하고, 百姓들에게 仁하게 한 뒤에 物을 사랑하라(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⁴²⁾에서 淵源된 것으로 天理의 分殊가 事物에 따라 같지 않으므로, 배푸는 것에 있어서도 差等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에 이러한 理分殊가 있기 때문에 나의 切實한 孝에 根元하여, 이를 미루어 天下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또 내가 全人類를 包容하는 四海同胞主義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墨子와 같이 自己 아버지를 남 보듯하는 兼愛의 思想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비록 내가 天地之師吾其性하더 라도 佛家에서처럼 無差等 無差別의 思想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理分殊가 있기 때문에 바로 “仁(=天理)을 實現하는 工夫가 비로소 親切有味하여, 茫茫하여 손댈 수 없는 걱정을 免할 수 있고, 또 物을 自己로 아는 病痛을 없이하여, 心德이 온전해질 것이다.”⁴³⁾

42) 上揭書, 同, 十四面, 聖學十圖, 第二西銘·

43) 上揭書, 同, 十五面: 爲仁之切, 始親切有味, 免放蕪蕩無交涉之患, 又無認物爲己之病, 而心德全矣.

이에 退溪는 “仁이라는 것은 비록 天地萬物과 더불어 一體가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먼저 自己로부터 根本이 되고 主宰가 되어서 모름지기 남과 내가 한 理致여서 서로 關聯이 親密切貫하다는 意義와 가슴에 가득한 惻隱한 마음이 貫徹流通되어서 막힘이 없고 고루 미치지 않는데가 없음을 깨달아서 얻어야 비로소 이것이 仁의 實體이다. 萬若에 이 理致를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天地萬物이 一體로 仁이 된다고 한다면, 이른바 仁의 體라는 것이 限없이 넓고 멀어서 나의 心身과 더불어 무슨 關係가 있겠는가? 墨家가 사랑에 差等이 없다고 하여, 남과 다른 소히 區別없이 생각하는 것이나, 佛家에서 確然히 남과 다른 區別하여 남이 나의 病이 된다고 認識하는 것은 다 이 뜻(理分殊 所以爲義)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⁴⁴⁾ 하였다.

4 減私爲公의 仁愛

天理인 仁은 곧 天地生物之心으로 人間은 이를 이어받아 生之性, 仁之理가 된 것이다. 따라서 天地自然을 낳고자 하는 仁愛의 마음은 바로 人間의 本性이다.

이에 우리는 仁愛를 具現하기 爲해서 私心を 깨트리고 無我的 大公을 얻어 彼我間에 間隙을 없이 하고, 天地 自然과 一體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天地를 한 집안처럼 하고 人類를 한 사람처럼 하여,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하는 것이니, 이러야만 비로소 仁之道를 實現했다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君子의 大我之心 大人之心이다 仁者는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우고, 내가 達하고자 하면 남을 達하게 한다

이에 “나”(豫, 吾 我)라는 글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私로서의 나요, 다른 하나는 公으로서의 나이다. 例컨데 子貢의 我不欲人之加諸我也, 吾亦欲無加諸人之의 我와 吾는 다 公을 말한 것이요, 孔子가 絕四의 毋意毋必毋固毋我라고 한 我是 私를 말한 것이다 또 己欲立而立人의 己는 公이며, 顏子의 克己復禮의 己는 私이다. 이처럼 “나”라는 한 글자에 하나는 公, 하나는 私라는 전혀 동떨어진 두 가지 뜻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뜻을 잘 살피서 恒常 私欲을 警戒하고 仁愛의 天理를 保存하는 減私爲公의 大我之心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VI. 四端七情論

1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

退溪의 四端七情論은 高峰과의 論辯에 依하여 深化되어졌기 때문에 高峰의 主張과

44) 上揭書, 同, 五下面, 西銘考證講義. 爲仁者雖與天地萬物爲一體然, 必先要從自己爲原本爲主宰, 仍須見得物我一理相關親味, 與人滿腔子惻隱之心, 貫徹流行, 無有壅閉, 無不周偏處, 方是仁之實體, 若不知此理, 而泛以天地萬物一體爲仁, 則所謂仁禮者, 莽莽萬萬, 與吾身心, 有何干涉哉, 如墨氏愛無差等, 釋氏認物爲己之病, 皆不知此義故也

對比하여 叙述하는 것이 훨씬 理解를 빠르게 할성 기나. 卽 退溪·高峰間의 四端七情論은 退溪가 五十三歲 되던 해에 鄭之采의 天命圖中,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를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로 訂正함으로써 其後 六年後에 高峰으로부터 「非七情外 復有四端」이며 「天下未有無理之氣요 亦未有無氣之理」인데 理氣를 對舉해서 理發의 氣發이니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質問을 해 온데서 비롯된다. 이에 退溪는 四端七情이 各各 理氣共在임을 아는데에 그 區別함이 너무 甚하여 或 그것이 士友間에 論爭을 불러 일으키는 結果를 招來하지 않을까 憂慮하고, 「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이라 改作하여 高峰에게 回信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앞서 것과 比較하여 달라진 것은 「理之發」, 「氣之發」代身에 「四端之發」, 「七情之發」을 使用했고 特히 四端은 「純理」이나 七情은 「兼氣」, 卽 合理氣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四端과 七情을 確然히 區別하여 생각하려는 그의 意圖에 있어서는 別로 變함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高峰은 “萬一에 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이라고 하면 前說보다는 若干 나은듯하나, 그래도 亦是 不足한데가 있다고 생각한다⁴⁵⁾ 하였다. 卽 그 는 四端과 七情을 分離하여 對立關係로 보는 退溪의 立場은 理와 氣를 判異한 두 物로 看做하게 되어, 그 結果 七情은 四端과 無關하고, 四端은 氣를 乘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高峰에 依하면 四端은 어디까지나 七情의 範疇속에 包含되어 있으며, 七情의 理氣 가운데서 理만을 剔出한 것에 不過한 것이라는 것이다. 高峰은 이러한 論據로서 子思의 喜怒哀樂의 中和와 孟子의 四端을 比較하여 四端은 七情의 一部임을 證明하였다. “但只 子思와 孟子가 指摘해서 말하는 바에 差異가 있으므로 四端七情의 區別이 있을 따름이지 七情의 밖에 따로 四端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⁴⁶⁾ “大概 性이 發할 즈음에 氣가 用事하지 아니하며, 本然의 善이 直遂되는 것이 바로 孟子가 말하는 四端입니다. 이 참으로 純粹한 것이 곧 天理가 發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七情 밖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곧 七情 가운데서 發해서 節度에 맞은 것의 苗脈입니다.”⁴⁷⁾

그러나 退溪의 見解는 四端은 四德의 性에서 發한 것이요, 七情은 外物의 感觸이 中에 動하여 境遇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氣이며 그 所從來가 決코 四端과 갖지 않다는 立場을 取하였다. 卽 그에 依하면 四端인 惻隱, 羞惡, 辭讓, 是非之心은 情이요, 그

45) 上揭書, 卷之十六, 十三面, 附奇明彥非四端七情分理氣辯·若又以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改之, 則雖似稍勝於前說, 而愚意亦恐未安

46) 上揭書, 同, 十三面 但子思孟子所說以言之者不同故有四端七情者別耳, 非七情之外復有四端

47) 上揭書, 同, 十三面·蓋性之乍發氣不用事, 本然之性得以直遂者, 正孟子所謂四端者也, 此固純是天理之所發, 然非能出於七情之外也, 乃情中發而中節者之苗脈也

發하는 것은 勿論 理氣共在, 相須相待하여 體用이 되는 心이기는 하지만 그 所就言之側이 곧 仁義禮智기 端緒인만큼 主理라 할 수 있고, 反面에 七情인 喜怒哀懼愛惡欲도 亦是 非無理之氣이나 그 發하는 것이 外部와의 接觸에 感受되어 먼저 動하는 것이 形氣인만큼 그 所就言之側이 主氣이다 이와같이 四端七情은 各各 그 所從來가 다르기 때문에 그 所主, 所重을 나리 主理 主氣로 分說하여 四端은 理之發이요, 七情은 氣之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四端과 七情)는 비록 다 理氣에 不過하다고 할 지라도 그 所從來로 말미암아 各各 所主와 所重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어느 것은 理요, 어느 것은 氣라고 해서 무슨 不可함이 있겠습니까?”⁴⁸⁾

다음으로 退溪가 四端七情을 理氣로 分說하려는 主張의 論據로서는 性에 있어서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의 分說에 比較하여 合致된다고 보는데 있다. “情의 四端 七情의 區別은 性의 本然 氣稟의 差異가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性에도 理氣로 區別하여 말할 수 있는데 情에 있어서만 理氣를 區別해서 말함이 어찌 不可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⁴⁹⁾ 本然之性은 例컨데 子思의 天命之性, 孟子의 性善之性과 같은 것으로 이들은 모두 理氣共在하는 가운데서 理의 源頭本然處를 찾아 오직 理만을 指摘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純善無惡한 것이다. 따라서 萬一에 理氣共在만을 主張하고 理氣不相離만을 固執하게 되면 純善無惡의 本然之性은 결코 存在할 수 없고, 오직 稟生後의 氣稟이 섞인 氣質之性 밖에 말할 수 없는 結果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性理學에 있어서는 嚴然히 本然之性이라는 區別이 없을 수 없는 것과 같이 四端七情의 原理도 이와 같다고 退溪는 생각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退溪가 四端의 純善無惡한 道德의 絕對的 標準을 定立하려는 그의 意圖를 赫赫히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退溪는 結局 高峯이 四端七情은 다 理氣이며 善惡이 있다는 것에만 執着하여 四七을 理와 氣로 分離區分함을 不可하다고 하는데 對하여 이것은 마치 古人이 말할 鶴(鶴)吞(吞)棗의 格이 되어, (1) 氣의 自然 發見을 가지고 理의 本體가 그러하다고 보는 것이며, (2) 氣를 갖고 性을 論하는 弊端이 생기며, (3) 人欲을 天理라고 잘못 認定하는 結果가 紹來될 憂慮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退溪는 學을 講하는데 있어서 合一만을 좋아하고 分析을 싫어하는 高峯의 態度를 다음과 같이 忠告한다. “같은 것 가운데에 다른 것이 있음을 알고 다른 것 가운데에 같은 것이 있음을 알아서, 區分해서 들로 해도 그 分離性을 保存함이 곧 普遍性

48) 上揭書, 同, 十面, 答高峯四端七情第一書·二者雖曰皆不外乎理氣, 而因其所從來, 各指其所主與所重而言之, 則謂之某爲理某爲氣, 何不可之有乎

49) 上揭書, 同, 九面 爲情之有四端七情之分, 猶性之有本性氣稟之異也, 然則其於性也既可以理氣分之, 至於情猶不可以理氣分之乎.

이 되는 것입니다.”⁵⁰⁾ 이처럼 退溪의 學的 態度는 理氣論에 있어서 一而二 二而一을 維持하면서 同中異 異中同을 잃지 않는 立場이다

2 人乘馬에 比喻되는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

退溪는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을 스스로 愼思해서 自得한 것이었으나 그러한 意見이 過然 옳은가에 關係서는 오린 後에 朱子語類에서 같은 것을 發見함으로써 確信을 얻은 것 같다.

그러나 高峯은 이러한 表現을 朱子가 設令했다 하나라도 거기에는 相當한 曲折이 있다고 解釋했으며, 또 理之發 氣之發에 關한 解釋도 退溪와는 달리하고 있다. 即 朱子의 理之發 氣之發은 한 때의 偶發된 偏指에 不過한 것으로써 거기에 執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朱子의) 理之發 氣之發이라 함은 다른 前後의 論과 서로 參考해서 比較해 보면 그 異同曲折을 解釋할 수가 있습니다. 後學들은 마땅히 前後를 갖추어, 萬一 一般의인 말을 지켜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때의 偶然히 偏指한 말을 지켜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⁵¹⁾

高峯은 四端七情을 「兼理氣有善惡」, 「發而中節 發而不中節」 및 「理氣不相離, 理氣渾淪論說」 등을 重要한 理由로 들어, 四七의 所從來는 같으며, 善惡도 發而中節과 不中節에 있을 뿐이요 四端의 純善이 따로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退溪는 理氣不相離에는 理氣不相雜으로, 渾淪에는 分開로 맞서며, 또 所從來가 같다는 것에 對해서는 所主而言을 내세워 같지 않다는 主張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退溪의 말이 이를 잘 辯明하고 있다.

“大概 四端은 氣가 없는 것이 아니요, 七情은 理가 없는 것이 아니니, 이는 다만 公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滉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두 사람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先儒들이 이미 말했고, 先儒들이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이 준 바요, 사람이 받은 바의 源流脈絡이 木來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所見이 처음에는 같고 끝에는 다른 다른 것이 아니라 公의 뜻으로는 四端七情이 다 理氣를 兼하고 있어, 實은 같은데 이름이 다를뿐이리고 생각해서 理氣를 分屬함이 옳지 못하다는데에 있고, 滉의 뜻도 異中에서 同이 있음을 보는 까닭에 二者를 渾淪해서 말하는 境遇가 많고, 同中에서 異를 알므로 二者는 말하는 側面에 따라서

50) 上揭書, 同, 十面 就同中而知其有異, 氣異中而見有同, 分而爲二而不容其嘗離, 合而爲一實歸於不相雜, 乃偏周悉而無偏也.

51) 高峯答退溪論四端七情書, 第二書 然則謂是理之發是氣之發者, 與其他前後所論, 更互參較, 則其異同曲折自可見也, 不知, 後學當遵, 前後備陳所周諺之言乎, 抑當守其一時偶指之乎.

主理와 主氣의 差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니, 分屬한다 해서 어찌 不可 하겠습니까?”⁵²⁾

“이른바 渾論해 말함이라는 것은 混도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七情은 四端에 相待해서 말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나누어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디 ”⁵³⁾

이로부터 退溪의 四七論은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로 發展하여 이른 人乘馬에 比喩하여 나옴과 같이 말하고 있다. “古人이 말을 타고 出入하는 것으로써, 理가 氣를 타고 運行하는 것에 比喩한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大體로 사람은 말이 아니면 出入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軌道를 잃게 되는 것이니, 어떤이가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는데 ‘或은 分析하지 않고 一般으로 말하면 사람과 말이 그 가운데 있음이 마치 四端七情을 渾論해 말하는 것이 그 境遇입니다. 或은 사람이 가는 境遇를 指摘해서 말하면 반드시 말을 아울러 말하지 않더라도 말이 자니는 意味가 그 가운데 있음은 四端의 混이고, 或은 말이 가는 것을 指摘해서 말할 때에는 반드시 사람을 아울러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간다는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이 七情의 境遇라’고 하였읍니다.

이제 混이 四端七情을 分別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서는 渾論해 말함을 引用하여 攻擊하여 이것은 사람들이, 사람이 가면 말도 신디는 말을 듣고, 사람과 말이 하나이지 나누어 말할 수 없다고 逆說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混이 氣之發로 七情을 말하는 것을 보고서는 理發을 逆說하니 이것은 남이, 말이 가는 것을 보고 반드시 사람이 간다고 하며, 混이 理之發로 四端을 말하면 또 氣之發을 逆說하니 이것은 남이, 사람이 간다고 말하면 반드시 말이 간다고 함과 같으니, 이것은 바로 朱子가 이른바 눈가리고 장난하는 습박곡질과 비슷하다고 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 어떠하십니까?”⁵⁴⁾

以上의 人乘馬說은 退溪와 高峯 間의 論辨의 立場이 어디에 있는가를 明確히 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退溪의 高峯 間에 있어서 論辨의 質的 差異를 比較해 보면,

1) 天地之間未有不有理之氣, 亦未有不有氣之理로서 理氣不相離이지만, 또한 理自理, 氣

52) 退溪先生文集卷之十六, 二十九面, 答奇高峯論四端七情書第二書 夫四端非無氣, 七情非無理, 非徒公言之, 混亦言之, 非徒吾二人言之, 先儒已言之, 非先儒強言之, 乃天所賦人所受之源流脈終固然也, 然其所見始同而終異者, 無他, 公意以爲四端七情皆兼理氣同實異名, 不可以分屬理氣, 混意以爲就異中同而見有同, 故二者固多有渾論言之就同中而知其有異, 則二者所就而言, 本自有主理主氣之不同分屬, 何不可之有斯理也

53) 上揭書, 同, 三十九一四十面, 後論 所謂渾論言之者, 混非不知此, 惟以七情對四端, 則不得不分而言之耳

54) 上揭書, 同, 三十二面 ‘古人以人乘馬出入, 此理乘氣而行, 正好, 蓋人非馬非出入, 馬非人失軌道, 人馬相須不相離, 人有指說此者, 或泛指而言其行則人馬皆在其中, 四七渾論而言者是也, 或指言人行則不須并言馬, 而馬行在其中, 四端是也, 或指言馬行則不須并言人, 而人行在其中, 七情是也, 公見混分別而言四七, 則每引渾論言者以改之, 是見人說, 人行馬行而力言人馬一也, 不可分說也, 見混以氣發言七情, 則力言理發, 是見人說馬行而必曰人行也, 見而混以理發言四端, 則力言氣發, 是見人說人行而必曰馬行也, 此正朱子所謂與迷藏之戲相似, 如何如何.

自氣의 理氣不相離의 微妙性을 退溪와 高峯이 다같이 認定하면서도 高峯은 理氣不相離의 渾淪面을 強調하고 있는 反面에 退溪는 理氣不相雜의 分開面을 強調하고 있다.

2) 위의 自然的 歸結로서 退溪는 理氣互發說을 主張하는데 對하여, 高峯은 理氣共發說을 主張하고 있다.

3) 高峯은 始終如一 理氣共在의 原初的인 狀況에 머물면서 一은 一이지 二가 될 수 없다는 一而一만을 固守한 反面에, 退溪는 이러한 原初的인 一而一을 承認하면서도 한 걸음 나아가서, 理는 理요, 氣는 氣로 分離 可能하다는 一而二 二而一을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理論上 退溪가 高峯보다 分析的으로 發展된 立場을 取하고 있다 하겠다.

이제 退溪가 四端七情論을 追求하는 哲學的 態度가 얼마나 眞摯했던가는 退溪 自身이 말한 것을 直接 引用함으로써 이 章을 끝맺고자 한다.

“泚의 응출한 讀書方法은 무릇 聖賢의 義理를 밀한 곳이 顯하면 顯을 좇아 求하되, 敢히 輕率히 그 微를 求하지 아니하며, 微가 있으면 그 微를 追求하되, 구태여 輕率히 顯한 곳을 追求하지 않으며, 淺하면 淺을 좇아서 구태여 深을 좇으려 하지 않으며, 深하면 深한데로 나아가서 구태여 淺에 미치려 하지 아니하며, 分開해서 말한곳은 分開해 보되, 渾淪함이 있음을 해치지 않으며, 渾淪해서 말한 곳은 한덩어리로 보되 分開面이 있음을 해치지 않으며, 私意를 가지고 左로 끌고 右로 당겨서 分開를 숨쳐서 한덩어리로 하거나 渾淪을 떠나서 分開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와같이 하기를 오래하면 自然히 그동안에 점점 條理가 있어서 어지러움을 용납하지 아니함을 보게 되고, 점차로 聖賢의 말이 橫說豎說 하더라도 各各 마땅한 것이 있어서 서로 妨害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或 이것을 自己의 說로 삼으면 또한 義理의 本來 定해진 本分에 거의 어긋나지 않을까 하고, 萬若에 본 것이 그릇된 것이나 말한 것이 그릇된 것이 있으면, 남이 指指하거나 或은 스스로 覺醒하여 곧 고치면 또한 스스로 滿足해질 것이니, 어찌 나의 所見이 있다하여 늘 自己의 意見만을 固執해서 남의 말을 한 마디도 容納하지 아니 하겠습니까? 또 어찌 聖賢의 말이 自己의 意見과 同一한 것은 取하고 同一하지 아니한 것은 억지로 同一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排斥하여 그르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千萬 不可한 것입니다 眞實로 이같이 하면 비록 當世에 있어서 온 天下 사람들이 나와 그 是非를 겨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千萬世 뒤에 聖賢이 나와서 나의 흠을 指摘하며, 나의 숨은 病弊를 看破하는 이가 없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君子가 급급히 뜻을 謙遜하게 가지고 말을 살피며, 義를 좇아 善을 따르며, 한 때의 한 사람을 이기기 爲하여 敢히 非를 求하지 못

하는 까닭입니다 ”⁵⁵⁾

VII. 結 論

지금까지 退溪의 人間像과 그의 思想에 關한 根元이 道德의 修練과 實踐에 있음을 揀取하여 이에 關한 몇가지 事項을 例舉하여 說明해 보았다.

退溪는 두 살 때에 아버지 贊成公을 여윈 막내로써, 홀몸이 되신 어머니가 農事와 養蠶에 힘쓰며 집안을 維持하는 어려운 家庭의 七男一女의 兄弟속에서 生長했다. 하지만 어머니 貞敬夫人 朴氏는 子女에 對한 남다른 教育熱이 있으신 분으로, 가난한 가운 데도 學費를 내어서 먼데나 가까운데나 할 것 없이 子女들을 就學시켜 每양 訓戒하기를, 무릇 文章에만 힘쓸뿐 아니라 特히 몸가짐과 行實을 重하게 여길 것을 再三 타이르곤 하였다.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嚴格한 家庭教育이 退溪가 一生의 德行과 學問을 成就하는 훌륭한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退溪는 六歲 때 처음으로 이웃 老人에게 가서 千字文을 배우기 始作하였는데, 아침이면 반드시 洗手하고 머리 빗고 가서 울타리 밖에서 가만히 前날 배운 것을 익힌 다음에 들어가 배우기를 嚴格한 스승에게 하듯 하였다. 그는 六, 七歲부터 벌써 溫恭遜悌하여 어른을 對할 때에 敢히 怠慢한 일군을 한 적이 없었고, 비록 밤중에 깊이 잠들었다가도 어른이 부르면 곧 깬어나서 對答을 恭遜히 하였다.

일 두살 때에 叔父 松齋 堦 어른으로부터 論語를 배우다가 第一學而篇 中の 「入則孝하고 出則弟하라」는 대목에 이르자 근심하여 스스로 警戒하기를 사рам된 道理가 마땅이 이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現代의 道德教育論은, 人間에 있어서의 主要性格形成이 大概 5, 6歲까지의 幼年期에 大部分 이루어지며, 道德이나 人格의 形成過程도 대충 兒童時節에 거의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時期의 道德性發達을 가지고 人生 全體에 關係하는 폭넓은 特性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兒童의 道德性 形成過程의 大部分을 家庭生活과 家庭教育

55) 上揭書, 同, 四十面, 後論. 在混說古拙法, 凡聖賢言義理處, 顯則從其顯而求之, 不敢輕索之於微, 微則從其微而究之, 不敢輕推之於顯, 淺則因其淺, 深則就其深, 不敢止於淺, 分開說處, 作分開看而不害有渾論, 渾論說處, 作渾論看而不害有分開, 不以私意左牽右掣, 合分開而作渾論, 離渾論而作分開, 如此久久, 自然漸顯其有并不容紊處, 漸見得聖賢之旨橫說豎說, 各有當不相妨礙處, 其或以是自爲說, 則亦庶幾不戾於義理索定之本分如遇見差說差處, 因人指點, 或自覺悟, 而隨手改定, 亦自快愜, 何能一有所見遽執己意不容他人一喙耶, 又何得於聖賢之言, 同於己者則取之, 不同於己者則或強之以爲同, 或斥之以爲非也, 苟如此雖便當時學天下之人, 無能與我抗其是非者, 千萬世之下, 安知不有聖賢者出, 指出我瑕隙彼彼我隱病乎, 此君子之所以汲汲然避忌察言服義從善, 而不敢爲一時霸勝一人之計也.

에 依한 것으로 풀이하여, 한 家庭의 環境, 家風, 父母의 子女에 對한 愛情과 教育的 觀心度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으로 보며, 兒童들 自身은 이러한 家庭生活을 通하여 起居, 衣服, 飲食, 姿勢, 龜掃, 應待, 言行, 禮節 等を 直接 익히고 實踐하는에서 그들의 道德性이 內面化 性格化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人間의 人格性 내지 道德性의 形成은 그가 出生하여 成長한 家庭에서 어린 時節에 어떠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生活을 익히며 成長하였는가 하는 것이 一生에 있어서의 全性格을 左右하는 重要한 要因이 된다는 것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이에 우리는以上에 든 退溪의 어린時節에 關한 몇가지 事例만으로서도 그가 그의 全生涯를 通하여 품긴 人格과 德性이 어떠한가를 可히 짐작케 한다.

“몸을 낮추어 物에 應하고 儉素하고 簡略히 살며, 자리를 비워 義를 行하고, 굳셈으로써 慾心을 막았도다. 惡한 것을 보면 惡臭를 맡는듯 하고, 착한 것을 들으면 얼굴 빛을 고쳤도다. 人倫의 아름다움과 日用의 몇몇함은 잔 것도 없고 굵은 것도 없이 두루 그 理致에 마땅하도다”⁵⁶⁾

“미친 사람이나 교만한 선비나 사나운이나 한 번 그 집을 바라만 봐도 스스로 氣가 눌러 恭遜해져서, 제각기 그 마음에 가득찬 더러움이 얼음이 풀리는듯 녹고 말았도다. 성내지 않아도 威嚴이 있으니, 惡한 者는 스스로 慎筋하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니, 착한 者는 본을 받았도다”⁵⁷⁾

以上은 退溪가 돌아간 後 그를 追慕하여 祭文으로 올린 柳雲龍의 글 가운데의 一句節로서, 退溪 平生의 人品을 잘 模寫한 것이라 여겨진다.

참으로 退溪의 一生은 道와 德으로 徹底하게 武裝된 人間으로, 그는 如何한 領域의 如何한 境遇에 處해서도 決코 道德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換言하면 한번의 思辨의 哲學을 思索함에 있어서도 道問學而尊德性을 主內容으로 하였으며 한 句節의 글, 한 首의 詩를 짓는데도 人生의 道理와 德行을 생각했고, 한 때의 政治를 行함에 있어서도 德을 갖춘 聖君賢臣의 道義政治를 바라마지 않았으며, 一瞬의 教育에도 道義의 崇尚과 德性의 涵養을 잃지 아니하였다. 實로 退溪는 “믿음이 篤實하고 學問을 좋아하며, 理에는 밝고 義에는 精하며, 그것이 안으로 쌓이면 德行이 되고 밖으로 나타나면 事業이 되어, 斯文을 불들어 세우고 우리의 道를 維持하였으니 그 功은 참으로 우리 東方에 일찍 없었던 것이다.”⁵⁸⁾

56) 退溪先生言行錄, 卷之六, 三十面, 祭文, 柳雲龍, 卑以應物儉以處約, 虛以服義剛以制欲, 見惡如臭聞善易色, 人倫之懿日用之常, 無細無大咸理之當.

57) 上揭書, 同, 三十面. 狂夫驕士鬪戾披猖, 一望門牆已自遜抑, 各充其心鄙吝氷釋, 不怒而威爲惡者筋, 不言而信爲善者法.

58) 上揭書, 同, 十九面, 崇終獻議·贈領議政, 李況, 篤信好學, 理明義精, 充而爲德行, 發而爲事業, 扶植斯文, 維持吾道之功, 實吾東方所未有也.

退溪의 道德論은 바로 儒學上에 나타난 聖賢의 模範에 미라 「天」「天命」「天理」「天道」에 合致하는 人間의 本性을 啓發함에 있고 이러한 思想을 集約하여 總體的으로 表現한 것이 聖學十圖라 하겠다. 그리고 이 聖學十圖는 다시 敬을 始終 바탕으로 하여 이를 實踐함을 根幹事로 하고 있다.

居敬 또는 持敬이라 함은 쉽게 풀이하면 日常生活의 周邊에서 일어나고 마주치는 彝倫과 道德에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하는 것으로, 例컨데 몸을 端正히 하는 것, 父母를 정성껏 모시는 것과 같은 平凡하고도 쉬운 일을 어긋나지 않겠끔 遂行하는 마음가짐인 것이다. “月瀾에 제시던 그 어느날 한 밤에 혼자 일어났을 때에, 마침 德弘이 곁에 있다가 敬字의 뜻을 물었더니, 退溪先生님께서 말씀하시기를, 衣冠을 整齊하는 것, 또 “생각을 한결같이 하는 것,” 어떤 일이나 그렇게 하면 賢賢이 될 수 있다 하셨다”⁵⁹⁾는 것이다.

그러나 退溪에 의하면 이러한 敬의 態度는 저절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恒時 조심해서 배우고 익혀야 하며, 또 배우고 익힌다해서 하루 아침에 갑자기 成就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時節부터 繼續 實踐해서 習慣化 性格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무엇보다도 敬을 爲한 道德教育을 重要視하고 이를 爲해 어린 時節에 「小學」工夫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한다.

「小學」의 內容은 立教, 明倫, 敬身이나, 이 중에서도 五倫에 關한 明倫事項이 第一 많고 또한 徹底하게 強調되고 있다. 사람이 禽獸와 다른 것은 이 五倫이라는 人間特有的 道義의 秩序가 있기 때문에 우리 東洋人은 古代 堯舜時代부터 이미 이 五倫을 重要視하고, 兒童을 教育함에 있어서 恒時 이러한 倫理教育을 主要學習內容으로 徹底한 指導를 해왔던 것이다.

儒教에 있어서의 이 五倫의 가르침은 특히 우리나라 近世朝鮮의 倫理의 支柱가 되어 왔었다. 그래서 우리의 祖上들은 이를 舍利玉條처럼 信奉하여 그 가르침에 行動樣式이 어긋나지 않도록 徹頭徹尾 實踐하였으며, 이에 對한 秋毫의 疑心이나 躊躇함이 없었다. 그렇다고 오늘의 우리들 마저 이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主張함은 勿論 아니다. 저기에는 우리의 現代的 倫理와 行動樣式에 맞지 않는 部分이 적지 아니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러한 倫理觀이 오늘의 우리에게 그대로 通할리 없는 것이다. 우리는 「小學」의 倫理觀이 現代的 그것과 相馳된 部分들이 무엇인가를 比較 檢討해볼 課題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만 오늘날이라 해서 父母兄弟나 夫婦間의 家庭倫理가 無視될 수

59) , 上揭書, 同, 三十二面, 祭文, 李德弘·月瀾當日中夜獨起, 弘適在座問敬字旨, 曰正衣冠曰一思慮, 從事於斯賢聖可敬.

없고, 師弟나 長幼, 親舊間에 道義나 禮節이 輕視될 수 없으며, 國家와 國民, 指導者와 被指導者 間에 道德的 秩序나 規範을 疏忽하게 나루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아니 이를 그 어느 때보다도 重大視해야 할 때가 아닐까? 萬一 우리가 이를 重大視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런 點을 退溪의 聖學十圖에서 兒童의 道德教育을 強調하는 第三小學圖說의 趣旨와, 道德의 內面化 性格化를 重要視하는 第五白鹿洞規圖說과, 道德의 日常的 履行과 實踐을 強化하는 第十敬齋箴圖說, 第十夙興夜寐箴圖說 等の 精神으로부터 하나의 커다란 教訓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退溪에 있어서 이러한 少年時節의 持敬과 倫理工夫는 또한 成人의 「大學」工夫에 있어서까지 그대로 延長되고 있다 卽 少年時節의 持敬과 五倫은 大學 八條目的 바탕이요, 反對로 大學의 八條目은 이 持敬과 五倫을 根元으로 해야만 비로소 順序와 節次가 맞는 완전한 工夫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退溪에 있어서의 이러한 道德教育의 節次와 順次性的 原則은 現代道德의 指導領域에도 符合된다. 卽 그의 修己爲本思想은 오늘날 道德을 人間生活의 全般, 或은 人間의 價値追求活動의 全領域에 걸친 統合的 規範으로 보며, 그 發顯을 主體에서 客體, 自我에서 他我, 個體에서 全體으로 顯現하는 것으로 보는 立場과 合致하며, 或은 退溪의 修齊治平은 그 領域을 오늘날 禮節生活→個人生活→社會生活→國家生活→反共生活의 領域으로 擴張해가는 것으로 보는 立場과 그 原理面에 있어서 同一한 것이라 하겠다.

現代人 가운데는 흔히 眞理라 하면 이는 現實의 自己와 家庭, 社會와 國家를 超越한 먼 곳에 存在하며, 또한 그것은 道德과 倫理와 전혀 無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道德은 道德學者만이 關與하는 것으로 政治人이나 文人, 或은 產業人 經濟人과는 아무런 相關되는바 없는 것으로 看做하여 外面해 버린다. 그러나 退溪에 依하면 이러한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서 우리는 이에 關係 깊은 反省과 警戒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안다.

우리는 普通, 天理니 天命이니 理니 道니 하는 것은 우리와 距離가 먼 것으로 생각을 하나 實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自身의 타고난 本性을 그대로 따르며 實踐함에 依해서 나타난 結果가 天理, 天命이다. 換言하면 내몸, 내마음 속에 있는 純善한 本來的인 것을 닦으면 그것이 곧 天命 天理의 道로서 하늘과 一體가 되고 聖賢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凡人의 몸과 마음에 氣稟의 濁駁함이 있어서 天理의 本性이 隱蔽되어 있기 때문에 天理가 먼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居敬하고 窮理함을 通하여 濁駁한 氣稟을 바로잡고 天理인 本性을 回復하자는 것이 곧 退溪學의 要諦인 것으로서 이는 곧 自我의 主體的 省察에 依한 道德的 覺醒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即 우리는 窮理함에 있어서까지 이는 人生을 올바르게 살리는 道德的 覺醒의 手段으로 봐야 하며, 그것을 결코 어떤 客觀的 事物에 關한 單純한 知識을 攝取하기 爲한 抽象的인 理論의 探究로 보서는 안된다고 본다.

窮理의 이러한 態度, 이러한 立場을 우리가 退溪의 四端七情論을 解釋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適用될 수 있다 하겠다. 即 부질없는 觀念的 遊戱로 論爭을 일삼는 따위는 聖門에서 크게 禁하고 있을뿐더러, 現代에 있어서도 그러한 끝없는 形而上學的 論爭은 우리의 關心事에서 이미 떨어져 버린 것이다. 생각컨대 이러한 問題는 이미 Kant가 純粹理性의 二律背反論에서 充分히 解明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다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問題되는 關心事는 어떻게 하면 우리 國民의 道德性和 倫理意識을 高揚할 수 있을까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現在의 우리 國民은 科學과 技術乃至는 物質文明의 急速한 發展때문에 道德과 倫理는 그의 均衡을 喪失하고 精神文化는 混亂마저 惹起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對處하여 現實에 桮梏이 되는 남은 封建主義 時代의 倫理 道德을 하루속히 히몰어 버리고 現代의 感覺에 맞는 民主主義 倫理 道德을 代替하기에 汲汲하고 있으나 이에 對한 價値觀의 確立은 아기도 尠기. 우리 祖上들이 崇尚하던 儒教 倫理 道德의 價値觀 深化에 比하면 遼遠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 時代의 倫理 道德이라 해서 過去의 그것들을 無條件 全部 排除해야 함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道를 深化하여 그것만을 爲하여 살다 사라져간 우리 祖上의 높은 德과 이에 關한 옳은 가르침 같은 것은 하루 速히 虛心坦懷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敬虔한 마음으로 배워야 할 것으로 確信하는 바이다.

따라서 四端七情에 있어서도 우리가 必要로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思辨的인 形而上學的 論辨에 많이 치우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指向하는 原來의 趣旨가 道德的 倫理的인 것에 있다는 것으로 還元하여, 오직 純善無惡한 天理의 本性을 깨치고 익히서 그것에로 擴而充之하는 實踐的 意味로 解釋함을 宗旨로 삼을 때에 비로소 退溪學을 研究하는 意義가 더 한층 빛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